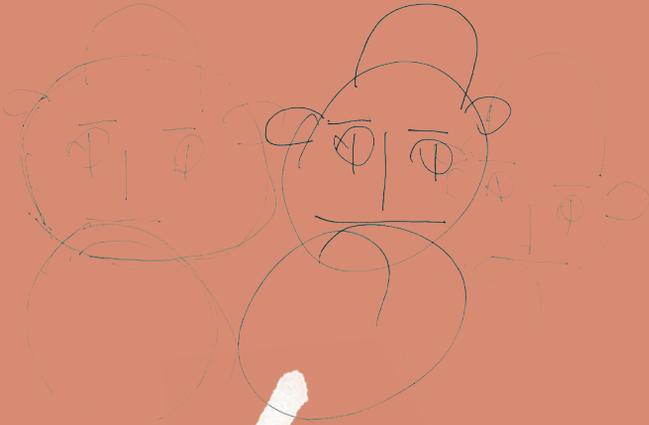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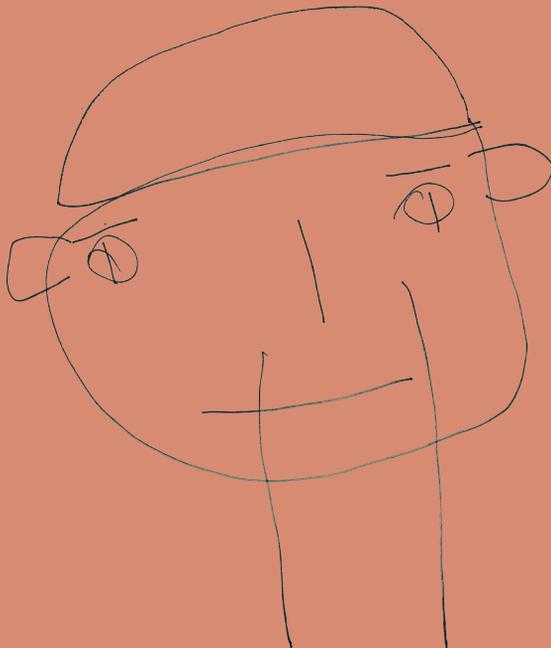
ISSN 2383-9872

밑 불 이 되고 불 씨 가 되 자

2018년 가을



노들마리 리



(사)노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지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 「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 「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마로니에공원에 휠체어그네 타러 와요.
언제라도 놀러 와요.”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 03 타인의 고통, 구체적 사랑 * 장선정
- 05 [고병권의 비마이너] 차라투스트라와 첫 번째 길동무
- 09 홍철과 지민의 치열한 내 집 입주기 * 이홍철, 정지민, 배승천, 한명희
- 12 선심언니의 폭염투쟁 이야기 * 강혜민
- 17 [장맛 핫이슈] 목숨 걸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 문애린
- 20 누구도 남겨 두지 않는다 프로젝트 : 상상력이 우리를 구한다 * 박은선
- 27 [대학로야 같이 놀자] 대학로 편의시설 설치기 * 김필순
- 32 "권영진 시장님, 마음 푸세요~"라고 하면 폴리실 건가요? * 전근배
- 35 1842번의 하루를 새기다 * 김진수
- 37 노들과 베델 - 배움의 공동체, 운동의 공동체, 연구의 공동체 * 유기훈
- 40 박종필 감독 1주기, 그를 기억하는 우리의 방법 * 조한진희(반다)

- 44 [형님 한 말씀] 노들야학 * 김명학
- 46 하나의 부리에서 펼쳐진 노란들판 * 양현준
- 47 [노들야 안녕]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 정고은
- 48 [노들야 안녕] 만남의 공동체, 노들 * 김형근
- 50 [노들야 안녕] 업무 6개월차, 노들에서 고군분투 중 * 최혜영
- 51 [노들야 안녕] 어머니가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 박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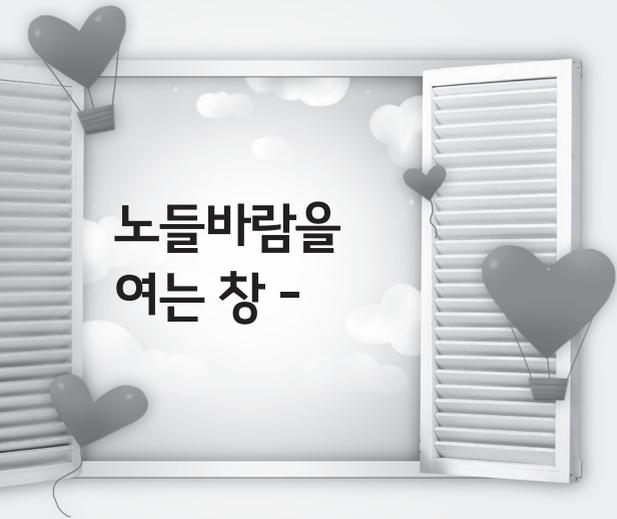
- 52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10년의 기다림 * 김성진
- 56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젊은 처녀가 참 착하네~" 영!? * 송은영
- 58 [교단일기] 자신의 한계를 의심만 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 박누리
- 60 센터판의 자립생활주택 운영 도전기 * 서기현
- 62 [장애인권교육 이야기] 장애인은 '훌륭한' 장애인권강사가 될 수 없나요 * 허신행

- 64 '평등한 밥상' 티켓판매왕들이 전하는 감사인사 * 김동림, 한명희, 김도현, 이형숙
- 67 장애인문화예술관 소식 * 주은아
- 69 '육하는 여자' 제작 뒷이야기... * 박세영
- 71 제 9회 종로 노들보치야대회!!! * 임지영
- 73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 박정숙
- 74 [동네 한 바퀴] '핑둥'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 평둥
- 76 [노들책꽂이1] 실격당한 우리를 위한 초상화 * 박은영
- 80 [노들책꽂이2] 어떤 말들의 해방 * 흥은전
- 82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장애인문화예술관 후원인 김연정 님
- 83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낫살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116호 2018·10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정소영 민아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의 디자인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눈을 감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데 말들이 웅성대는 밤이 있습니다. 말들이 떠다니는데 붙잡기 어렵고 이 말 저 말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머리속에 등장하는 날이 있습니다. 전에는 글로 기록하고 형태도 완성해보려 노력했지만 지금은 흘러보낼 때가 많습니다. 말이, 소리가, 생각이 글이 되지 못하면 흘러가버리고 만다는 생각에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글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글은 한계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정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선명한 글들을 만나게 되고 두고두고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항상 이런 건 아니라고. 나, 항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같은. (최은영,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어느날 문득 찾아온 사람에게 구질구질한 일상을 다 내보이게 되었을 때, 그런 나를 보고 돌아가는 복잡한 그를 향해 순애 언니는 끝내 한마디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어쩐지 이 말은 자주 저를 위로하는 말이 되어주었습니다.

평론가 신형철은 폭력을 “어떤 사람/사건의 진실에 최대한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모든 태도”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라고 설명합니다. 섬세해지려는 노력, 정확해지려는 노력, 말이든 글이든 나 자신 자체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으려는 노력들. 지금 이렇게 짧은 글에도 중언부언하지만 노력하다보면 글도, 삶도 달라질지 모르지요. 요즘 저는 이런 노력들을 찾아 헤맵니다.



타인의 고통, 구체적 사랑

‘당신은 괜찮은지.....’

장선정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느닷없이 ‘젓’ 이야기로 시작해 보자면, (19금 아님....^^) 임신 중에 말도 못 하게 체중이 늘었다가, 출산 후 모유수유를 하다 보니 저절로 살이 빠졌다면서 핏색한 얼굴로 등장하는 여자 연예인들이 많지만, 사실 아이에게 젓을 먹이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일단, 아이를 낳자마자 내가 포유류임을 인정해야 하는 놀라움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하도 자주 먹여야 하니까 그냥 윗도리는 반탈의 상태로 있는 게 오히려 편하고, 젓을 만들기 위해 국이든 무엇이든 액체류를 계속 먹여줘야 하고, 젓몸살이라도 오게 되면 마음 속 깊이 간직했던 각종 거친 단어를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모유수유를 길게 해서 아이에게 이가 나기 시작하면 더 큰 재앙이 오는데, 잇몸이 간지러운 아이는 젓꼭지를 깨물고, 상처가 나도 젓을 계속 먹으려 하면 항생제나 연고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끼인 상처가 계속

끼이면서 신체의 한 부위에서 젓과 피와 혈장을 동시에 목격하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는 각종 체액이 함께 난무하는 기이한 순간을 맞기도 하죠. 그 뿐이 아니라, 갓난아이가 대략 돌이 될 때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던 ‘1인 집중 체제’ 안에서 충실하게 헌신하며 사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지금은 커다랗고 냄새나는 중2가 되었지만, 오래 전, 큰 아이는 기는 것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늦어서 주변 어른들에게 국가존폐에 버금가는 근심거리였어요. 여러 상황과 사람이, 15개월이 넘도록 걷지 않는 아이를 태평하게 두지 않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소파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얼굴을 건드리는 느낌에 깨 보니 아이가 두 발로 서서 외계어를 중얼거리며 감히 ‘진자리 마른자리 같이 눕시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있었어요. ‘저 좀 보시죠?’ 하는 얼굴로요.

흔들흔들하는 아이의 다리를 보니 비몽사몽간에도 속이 뭉클하면서 ‘너도 크느라 꽤 애쓰는구나.’ 하는 연결의 느낌이랄까, 이 기억은 지금부터 영원히 이 아이와 나의 둘 만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보면, 아마 그것이 제가 느낀 최초의 현실적 모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

좀 사는 집 좀 노는 아들로 어지간히 속을 썩이다가 급기야 행글라이더를 달고 추락해서 척추를 다치고, 뭘 잘 했다고 몇 년이나 방구석에 틀어박혀 시들시들하던 아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건, 살아서는 다시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의 다리를 매일같이 주무르던 어머니의 ‘구체적 사랑’ 때문이었다고, **故**신지균 여사님의 추모사에 박경석은 적었죠.

...

그 후로 한 동안 ‘구체적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말엔 명단에서 빠졌던 중요 손님 같은, 아니 어쩌면 진작 알아야 할 주인을 이제 발견한 것 같은 새삼스런 타격감이 있었어요. (음.....바뀌 말해보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아도 무슨 일은 일어나죠.

일상다반사는 하루도 빈틈없이 엄중하고, 내 결의 문제는 단 한 순간도 내게 가볍지 않아요.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자 한다거나 조금 더 민주적인 조직이 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중에도 우리의 인간성은 계속 시험에 들고 내 안의 갈등은 늘 뜨거워서 종종 분리된 자아를 발견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좀 더 나은 세상에선 나도 좀 더 나아지긴 하는 건지 긴가민가하는 순간마저 있어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실상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서 절대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은 나누어지지 않죠.

뭐라고 항변하고 싶어 가슴이 벌렁거려도 고통은, 온전히 그 한 몸과 정신에서 발생하고 이뤄지는 단독의 것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다짐인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고통을 나눌 수 없어도 곁에 있겠다는,

내가 너의 고통에 닿지 못하더라도

나아지기를 바라겠다는,

고통으로 네게 흐르는 피와 땀과 눈물을 닦아도

좋겠냐는,

다시 서지 못 하는 너의 다리를 매일같이 주무르는

‘구체적 사랑’의 방법을 늘 마음에 두겠다는

스스로 하는 질문이자 답이기도 하고요.

밥은 먹었는지

감기는 좀 어떤지

속 썩이던 치통은 해결을 보았는지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요즘 그럭저럭 지낼 만한지,

그래서

당신은 괜찮은지

오래 궁금해 할게요.

[고병권의 비마이너]

차라투스트라¹의 첫 번째 길동무

고병권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으며,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노들야학에서 철학 수업의 첫 교재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하 『차라투스트라』)였다. 8년이 지나 다시 이 책을 집어 들었다. 지난 학기 몇몇 학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이번학기에는 꼭 니체를 해달라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것은 지호 씨와 홍경 형이었다. 지호 씨는 지난학기에 수지 씨에게 『차라투스트라』의 어린이용 해설서를 선물했고(수지 씨는 이게 여자 친구한테 할 선물이나고 내게 따지듯 꾸짖었다), 홍경 형은 『언더그라운드 니체』를 가져와서는 서명해달라고 했다. 야학에서 내가 철학 교사를 너무 오래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몇몇 학인들에게는 ‘니체’가 ‘철학’과 동급인 것 같다. ‘왜 니체를 읽으려느냐’고 묻자 지호 씨는 ‘철학 공부하고 싶어서요’라는 이상한 대답을 내놓았다.

프리모 레비를 읽었던 지난 학기 철학 수업은 철학 수업이 아니었던 말인가.

『차라투스트라』를 택한 것은 내 개인적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다. 다른 독서가 가능할까. 8년 전에는 ‘저편의 세계를 신봉하는 자들’이나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의 에피소드를 읽을 때 참 아슬아슬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이번엔 이 책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차라투스트라』의 머리말을 읽어나갔다. 『차라투스트라』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난해한 책으로 통한다. 그런데 여러 번 느낀 바이지만, 니체를 처음 접한 사람들과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때로는 깔깔거리고 때로는 신기해하며 읽을 수 있는 책이 『차라투스트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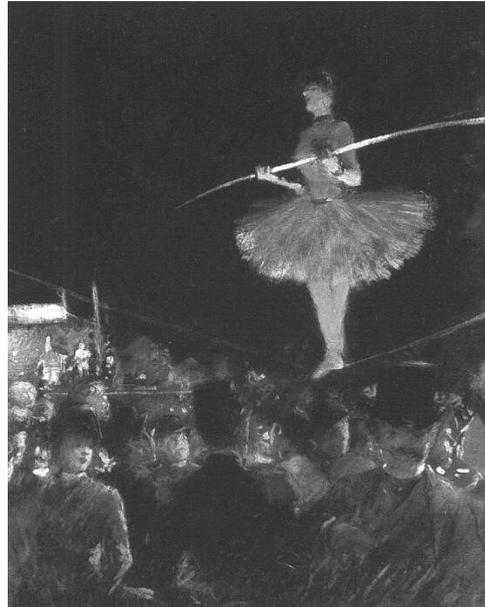
“깨달은 바 있어 십 년 동굴 생활을 접고 하산을 시

작한 차라투스트라. 그는 사람들에게 ‘신은 죽었다’는 복음을 선물하려고 신나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야기꾼처럼 풀어내기 시작하자 모두가 내 입을 주시했다. “그런데 하필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 성자였어요. 매일 찬송가를 지어 신께 바치는 사람이요. ‘신은 죽었다’는 말을 선물로 들고 온 사람과 매일 신에게 선물을 지어 바치는 사람. 과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시간이 이런 말로 끝나자 몇몇 학인이 ‘이런 게 어디 있느냐’며 뒷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TV 연속극처럼 다음 이야기를 끌어들이고는 중단하니 감질이 난 것이다. 뜻밖의 호응(?)을 보고는 이번 학기 수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야기꾼처럼 책을 읽어가기. 8년 전의 긴장감은 없었지만 그때보다는 한결 여유 있고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세 번째 시간의 이야기를 살짝 끌어들이고는 끝냈다. 머리말의 6절 첫 문장에서 끊었다. 차라투스트라가 군중 앞에서 설법을 펴던 중,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사람의 눈을 멀어붙게 만든 일”이 일어났다는 문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빨리 말해달라는 원성을 들었지만, ‘누군가 크게 다쳐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예고만을 해두고는 끝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어떻게 그럭저럭 마무리가 괜찮았다.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며 지난 시간의 광고가 과하지 않았나 걱정이 됐다. ‘입을 다물게 하고 눈을 멀어붙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어떡하나. 별 수 없었다. 시치미 떼고 글을 읽어갔다. 줄을 타는 곡예꾼을 광대가 뛰어넘는 장면이다.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말 때 문에 광대는 니체가 말한 위버멘쉬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 루이 포랭(Jean Louis Forain), Tight-Rope Walker(1885)

흥내일 뿐이다. 차라투스트라의 긴 여정에서 마주칠 여러 ‘사이비’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남의 머리를 딛고 기어 올라가는 시장터의 원숭이들처럼, 남을 밀쳐내고 남을 뛰어넘는 인간형이다. 위버멘쉬는 그와 반대다. 위버멘쉬가 딛고 올라서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정수리다.

그나저나 예고편은 무슨 살인 사건처럼 해놓았는데, ‘위버멘쉬’니 ‘자기극복’이니 하는 말들을 꺼내면 학인들의 눈은 멀어붙기는커녕 무겁게 내려앉을 것만 같았다. 무슨 추리소설처럼 극적인 반전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대할 텐데... 과장 광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까지 해두었다.

두 개의 탑 사이에 줄이 걸려 있었다. 한 쪽 탑문이

열리더니 곡예꾼이 나와 줄을 타기 시작한다. 그렇게 능숙한 사람은 아니었나보다. 주춤주춤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 중간에 이르렀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데 뒤를 보니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었다. 나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는, 곡예꾼은 어찌해야 하느냐고 학인들에게 물었다. 대답은 한결 같았다. 탄진 형도, 지호 씨도, 홍경 형도, 영은 씨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 탑문이 또 열리더니 광대가 나왔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곡예꾼을 쫓아왔다. 그리고 고는 소리쳤다. “어서 앞으로 가지 못해, 이 절름발이야!” 이 절름발이, 이 핏기 하나 없는 놈! 탑 속이나 처박혀 있지, 뭐 하러 나왔어? “누군가가 너를 그 속에 가두었어야 했는데. 너는 지금 너보다 뛰어난 자의 길을 가로막고 있잖아!”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기(寒氣)를 느꼈다. 예전에 읽을 때 무심코 지나쳤던 문장들이 차디찬 고드름처럼 매달려있는 게 아닌가. 『차라투스트라』는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책인데, 비유와 상징은 오간 데 없고, 차가운 현실이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말았다. 어떻게 노동야학에서 ‘절름발이’가 비유이고 상징일 수 있겠는가.

‘이 절름발이야, 탑에나 처박혀 있지 왜 기어 나와서, 우리 시간을 빼앗는 거야.’ 이동권 투쟁에서 수도 없이 듣는 말. 꼭 투쟁의 때가 아니라도 일상에서 언제나 접하는 말. 번잡한 길을 절뚝이며 걸을 때, 출퇴근 시간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오를 때, 때로는 눈빛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훈장말로 광대의 언어가 튀어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화면에 펼쳐진 텍스트에서 눈을 떼고 학인들을 보았을 때 여러 사람이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별별 떨던 곡예꾼은 앞서 학인들이 외쳤듯이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소리를 지르며 광대가 그를 뛰어넘었다. 깜짝 놀란 곡예꾼은 발을 헛딛었고 보조 장구인 장대를 놓치고는 바닥

로 떨어졌다. 몇몇 학인이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아... 어...’ 정숙 샘은 눈물까지 글썽였다. 탄진 형도 얼어붙은 듯 입을 닫아버렸다. 탈시설의 기억을 떠올리며, 줄 중간에서 머뭇거리던 곡예꾼에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손을 누구보다 크게 내저었는데, 사태의 끔찍한 전개에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구경꾼들이 혼비백산해서 흩어진 자리, 차라투스트라는 곡예꾼 곁에 앉았다. 곡예꾼은 자신이 지옥에 가는지를 물었다. 그를 가두고 훈련시켰던 이들이 그동안 지옥에 관한 이야기로 그를 주저앉혔던 모양이다. 온갖 이데올로기와 신화, 거짓 이야기들이 장애인들을 그렇게 만들 듯이. 차라투스트라가 그에게 말했다.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곡예꾼은 자신이 짐승처럼 살았다고 했다. “사람들이 매질하고 변변치 못한 먹이를 미끼로 쥐가며 춤을 추도록 훈련시키는 짐승 말이오.”

곡예꾼이 줄타기를 시작하기 전에 차라투스트라는 “인간이란 짐승과 위버멘쉬 사이에 걸려 있는 밧줄”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보면 곡예꾼의 줄타기는 인간을 박탈당한 짐승에서 인간을 넘어서 위버멘쉬로의 여정이었던 셈이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위버멘쉬를 향해 한 발씩 내딛었다. 그는 과감히 탑의 문을 열고 나왔으며, 비록 바닥에 떨어졌을지언정 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마지막 숨을 잡고 있던 곡예꾼은 차라투스트라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나는 비록 생명을 잃는다 해도 아무 것도 잃을 것이 없는 셈이오.”

그의 말은 2천 년 전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를 떠올리게 한다. 에피쿠로스는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하는 죽음에 관한 온갖 신화들에 맞섰다. 죄, 심판, 지옥 같은 것은 없다.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은 없으며 죽으면 아무 것도 없으니, 죽은 뒤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그의 가르침이었다. 지옥은 없다. 죄도 없다. 업보도 없다. 다만 삶이 있을 뿐.

확실한 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것. 이렇게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라는 것.
말은 이중으로 꼬여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죽기 위해서는 철저히 살아야 한다고.
그동안 죽어지낸 자야말로 내 안에서 죽어야 한다고.
두려움이든 소심함이든 게으름이든
탑 속에 나를 가두었던 모든 것들과 철저히 결별해야 한다고.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존재하는 것이다. 위협과 협박으로서, 폭력과 감금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대한 포기로서. 그렇게 보면 곡예꾼에게 지옥은 죽기 전에 끝이 났다. 그가 자유의 여정을 시작한 순간, 다시 말해 짐승에서 위버멘쉬로 이어진 밧줄을 타기 시작한 순간에 말이다.

엄밀히 하자면 곡예꾼은 짐승생활을 '끝냈다'. 물론 죽음 때문에도 그것은 끝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 그것을 '끝냈다'. 둘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자유를 살지 못한 채 맞은 죽음과 자유인으로서 맞은 죽음. 죽은 채로 살아있던 사람과 살아있으므로 죽지 않았던 사람. 두 사람이 맞은 죽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곡예꾼을 몰아붙이던 광대의 말을 환기하며 정숙 샘은 말했다. "살아오면서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병신이라는 말, 세상에 왜 나왔냐는 말. 근데요. 나는 정말 잘 죽기 위해 살아요." 나로서는 알 듯 모를 듯 한 말이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것. 이렇게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라는 것. 말은 이중으로 꼬여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죽기 위해서는 철저히 살아야 한다고. 그동안 죽어지낸 자야말로 내 안에

서 죽어야 한다고. 두려움이든 소심함이든 게으름이든 탑 속에 나를 가두었던 모든 것들과 철저히 결별해야 한다고. 이것이 『차라투스트라』가 '몰락'에서 시작하는 이유, 그것도 '철저한 몰락'에서 시작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길동무를 얻었다.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위협을 감수하고 파멸을 맞았던 사람,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기꺼이 삶의 길을 주춤주춤 걸어갔던 사람, 그가 차라투스트라의 첫 번째 길동무였다. 이번 학기 우리의 수업도 이렇게 시작되었다.

홍철과 지민의 치열한 내 집 입주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까지

정리 : 「노들야학」 명희 인터뷰 : 「노들야학」 승천, 지민, 홍철

STEP 1 내가 머무르고 있었던 곳

명희 영등포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지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랫동안. 서울에 살던 처음도 영등포 쪽방촌이었고, 지금 집에 오기 전까지도 여기에서만 살았죠.

홍철 10년 넘었어요. 예전에 거리에서 살다가 광야교회 알게 됐고 누가 소개시켜줬나 그래서 여기로 처음 왔고. 교회에서 배식일도 하고 이것저것 일도 하고 했어요. 공부하고 싶어서 집사님한테 학교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때 노들야학에 오기 시작했구요.

명희 홍철과 지민은 오랫동안 서울의 외딴섬 같았던 영등포 쪽방촌에서 오래 살았어요, 처음 그들의 집을 보았을 때 어땠어요?

승천 쪽방촌의 환경, 두 분의 방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빴어요. 영등포역 바로 옆 24시간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판을 지나면 쪽방촌이 나오는데 더운 날이라 더 그런지 동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좋지 않은 냄새가 났어요. 두 분 방 모두 이층에 있는데 머리가 부

딧칠 것 같은 낮은 천장에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오래된 집 다락방 올라가듯, 가벽에 고정된 나무를 잡고 기어 올라가면 복도 양 옆으로 몇 개의 방이 줄지어 있어요. 건물에 공동으로 쓰는 수도꼭지만 있고 화장실이 없어 샤워하거나 용변을 볼 때는 영등포역이나 근처 교회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두 방의 상황은 대조적이었는데 홍철의 방은 짐이고 세간이고 거의 없었고 지민의 방은 몇 년간 한 번 들어간 물건은 다시 나오지 못한 듯 많은 것(대부분은 쓰레기라고 해도 좋을)이 쌓여 있었어요. 홍철은 저와 둘이 가방 몇 개에 짐을 나눠들고 버스로 이사할 만큼 아무것도 없었고 지민형





은 이사하고도 집주인과 실랑이를 하며 교사 여럿이 청소해야 할 만큼 집 상태가 심각했어요.

STEP 2 내집찾아 삼만리1

명희 집은 어떤 계기로 구해주게 된 건가요? 그래도 두 분 다 전셋집인거죠?

승천 아마 누구라도 쓰레기로 가득 찬 지민 형 집 상황을 봤다면, 한시라도 빨리 집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형이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산 이유가 쪽방촌에 살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하수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집에서 일단 나오지 않고선 지민형이 집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랄 수 없었어요. 홍철은 야학 온 지는 꽤 되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한번씩 사라지곤 했어요. 친척 형이 와서 홍철을 데리고 가면, 몇 개월 사라졌다가 모은 돈은 다 날리고 몸엔 상처를 입고 나타났어요. (명희생이 고생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쪽방촌 힘 좀 쓰는 누군가와 지방에 (끌려) 내려갔다 모형을 못 냈다고 돈 달라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가끔 동네 험한 일에 휘말리기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홍철이 야학 근처에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야학에서 집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에는 두 사람 다 빨리 이사하고 싶어 해서 언제 나갈 수 있냐고 제게 수도 없이 물어 봤어요.

명희 정말 매일같이, 매순간 전화로 야학 사무실에 와서 물었죠.

승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지민, 홍철이 이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지원을 했던 과정에서 쪽방촌 중심의 지난 공동체와 단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 공동체와의 단절이 좋은 방법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글을 통해 지금도 누군가 살아가는 공간인 영등포 쪽방촌에 대해, 가난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염려가 돼요. 살아온 삶은 연속성이 있고 거기서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의 방법과 관계망이 있었는데 이사라는 방법으로 그걸 끊는 게 우리가 한 선택 중 최선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 다 SH 전세자금 대출 사업으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집을 구했어요. 8550만을 지원 받고 450만원을 자부담해요. 홍철은 자부담 금액이 없어 야학에서 자부담 비용을 빌렸어요. 지금 노들야학 급식일을 열심히 해서 조금씩 갚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특별히 엄청난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갚고 있는데 그 이자율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저도 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대출' 이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출 중 가장 안전한 주택자금 대출금에 집주인의 재무상태까지 까다롭게 심사 후 대출을 해주니 SH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업이 되기를 아파트 당첨 기다리듯 기다려야 하고 사업이 된데도 준비할 서류의 복잡성,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가난, 집 구하기의 어려움(전월세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 직방, 다방 등에 올라온 서울 전역의 수천의 집 가운데 SH 조건에 맞고 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받는 집은 수십 개도 되지 않아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이용해 정말 집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명희 두 분 다 집을 구할 때, 우선으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가령 창문이 해가 있는 방향으로 잘 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그리고 곰팡이가 혹시 피지는 않았는지 등 말이에요.

지민

홍철 승천 선생님이 구해주 집.

STEP 3 우당탕탕, 내집찾아 삼만리2

명희 집을 찾으면서, 차도 없이 홍철 혹은 지민을 데리고 서울시내 종로구/성북구에 집을 구하러 다니기가 쉽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적장애 혹은 조금 다른 세입자를 보고 차별을 받았던가 하는 일이 있었나요?

승천 집을 구하러 가는 날 제가 정상성(?)을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꼭 면접 보러 가듯 깨끗한 옷 입고 면도하고 가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우린 해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청소도 잘하고 관리비도 제때 낼게요. 친구들을 불러 밤늦도록 술마시고 소란 피우는 일은 없어요, 라는 인상을 줘야 하거든요. 집 보러 간 이후 제게 전화가 와 세입자분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냐고 물은 경우도 많았고 우리는 계약을 원했는데 집주인이 장애 때문에 안전상 걱정이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안 한 경우도 있고, 걱정하는 집주인을 붙잡고 긴 설득이 끝난 후에야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STEP 4 정착

명희 홍철과 지민은 자기집,이 살면서 처음 생긴 건데, 어떻게들 지내고 있나요?

승천 이사 초기에는 텅 빈 집을 채울 시간을 구하느라 바빴어요. 인천에서 티비가, 이태원에서 그릇이, 성북동에서 냉장고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집안에 필요한 물품들은 거의 구비가 되었어요. 이제 50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홍철은 홍철처럼 지민형은 지민처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민형의 집이 무척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고, 홍철은 집을 구하기로 마음먹고는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희 온전한 내집에서 주말에 뭐해요?

지민 잠자요.

홍철 밤낮으로 청소를 해, 하루에 두 번. 걸레 빨아서 방 닦고 누워 있다가 걸레 빨아서 방 닦고. 가까이에서 사람이 가득가득 안 살아서 조용하고 좋지. 그러니 청소를 해야 해.

명희 자립생활 그 이후, 아직은 홍철과 지민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숙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승천 이사 이후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좋은 것이었던 나쁜 것이었던 오랜 영등포 삶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잃었을 것 같아요. 삶의 방법,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요.

지금은 그 빈 부분을 노들야학이 채우고 있지만 그 빈 부분을 야학이 다 채울 수 있을까? 야학에서 더 많은 시간을 있고 야학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자립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야학을 매개로 더 많은 관계와 공간을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명희 집을 구해준 여정이 길었어요. 마지막으로 승천 선생님한테 두 분이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홍철 형한테 말했어요, 돈 모아서 제주도 같이 나눠오자고.

(지민) 배승천 선생님 좋아요.

흐흐. 고마워.

선심언니의 폭염투쟁 이야기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 폭염의 밤 속 혼자...

강혜민

비마이너 기자와 야학 시사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일만 합니다. 예전엔 이것저것 재밌는 거 많이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비마이너 일도 재밌지만 다른 것들로도 일상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애인이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마카롱과 케익과 맛있는 맥주와 맛있는 안주 좋아합니다. 나는 대항로 6층에 있어요.



□한테 선심 언니에 대한 글을 부탁받았는데 너무 바빠서 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당시 쓴 비마이너 기사로 글을 대체합니다. 민망(...)

이 글은 복지부 대담이 나오기 전에 쓴 거라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 덧붙이자면 노들인들의 투쟁과 연대 덕분에! 언니는 활동지원 24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8월 6일 노들야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하고 나흘 뒤인 10일 인권위는 복지부·서울시·강서구청에 ①선심 언니에 대해 활동지원 24시간을 속히 제공하고, ②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해당 기관들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10월부터 활동지원 24시간 대상자를 100명 더 추가할 예정이라며, 선심 언니는 24시간 대상자에 포함되니 그때 신청하면 활동지원 24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24시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복지부는 8, 9월엔 미래에 생기는 복지부 활동지원 바우처를 당겨 쓸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 행정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무슨 말이나면, 8월에 필요한 바우처는 9월 복지부 바우처에서, 9월에 필요한 바우처는 10월 복지부 바우처에서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서울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이 시작되면, 서울시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시 추가되는 서울시 바우처와 별도로 복지부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보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선심언니는 8월 16일부터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나, 복지부는 행정적 지원만 할 뿐 이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가 책임지는 꼴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국가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복지부는 도망갔어요. 선심 언니가 활동지원 24시간을 시급히 받을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 또 화가 났습니다! 으악.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ㅠ_ㅠ 자세한 이야기들은 장애 관련 기사들이 듬뿍 가득한 비마이너에서 더 읽어주세요! 하트 뽕뽕♡

“사람 눈이 허벌떡 뒤집어졌다니깐. 열이 39도인데 혼자 놔두면 죽어요, 의사가 나한테 그래.”

갑갑함에 먼저 말을 쏟아낸 건 그날을 함께한 활동지원사 이영진 씨(가명)였다.

“먹는 것도 없어요. 아침저녁으로 밥 두 손가락에 찌갈, 그걸로 끝나.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더위에 입맛 없어서 못 먹는다고. 내가 진단서 떼서 주민센터 가니깐, 이미 주어진 시간 다 써서 그 이상은 없대. 내가 만일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고 하니깐 왜 자기들한테 그러네. 내가 방법 좀 알려달라, 너무 무섭다, 하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서류 다 갖고 오라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수 없이 교장쌤(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한테 전화했어요. 선심 씨 죽는다고.”

김선심 씨(중증뇌병변장애, 55세)가 침대에 누워 꿈쩍도 않은 채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죽어야지. 한 사람이 희생해야 다른 사람들 24시간 받을 거 아니야. 옛날에 주영이가 죽어가지고...”

2012년, 김주영이 죽었다. 김주영은 선심 씨가 2006년에 시설을 나와서 첫 번째 거주한 체험홈의 룸메이트였다. 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있던 밤사이, 원인 불명의 불이 나 질식사했다는 김주영의 소식에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졌다. 그리고 2014년, 송국현·오지석이 죽었다. 그들 또한 활동지원사가 없는 사이 불에 타서, 인공호흡기가 빠져서 죽었다. 활동지원사가 없는 사이 일어난 중증장애인의 잇따른 죽음에 장애계는 2012년부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투쟁을 벌여 왔다. 그 결과 활동지원 대상자가 장애 1급에서 3급으로 확대되고, 지원 시간도 대폭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선심 씨 활동지원 시간도 230시간에서 현재와 같은 598시간(복지부 지원 401시간, 서울시 지원 197시간)이 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폭 늘어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량은 죽은 이들의 '목숨값'이었다. 그것을 선심 씨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주영처럼 자신이 죽어야' 활동지원 24시간이 보장될 거라고 말했다.

활동지원사 퇴근 후, 폭염 속 12시간 동안 홀로 방치된 중증장애인

과거에 비해 활동지원 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선심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3일은 밤에 혼자 있어야 한다. 특히 '31일'까지 있는 달엔 활동지원시간이 더더욱 부족해 혼자 있는 밤 시간도 하루 더 늘어난다. 그날도 그랬다.

지난 7월 31일 화요일 저녁 8시, 활동지원사가 퇴근했다. 다음 활동지원사는 아침 8시가 되어야 오니 12시간을 그 혼자 있어야 했다. 40도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던 날이었다. 그럼에도 전기 과열로 인한 누전사고가 걱정되어, 선심 씨는 활동지원사에게 선풍기를 꼭 끄고 가달라고 당부한다. 오래된 벽걸이 선풍기엔 그 흔한 '타이머' 기능조차 없다.

“불나면 나만 죽는 게 아냐. 이 아파트가 다 죽어. 그래서 내가 (활동지원사 없을 때) 선풍기 못 써.”

그렇게 선풍기 바람조차 없는 11평 자그만 임대아파트에 선심 씨는 홀로 누워있었다. 오직 베란다 문만 열려있을 뿐이다. 집 밖을 빠져나가지 못한 열기로 집은 불가마처럼 달궈졌고, 다음 날 아침 8시 활동지원사가 왔을 때 선심 씨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다. 평소 아무리 아파도 진통제 한 알 먹지 않던 선심 씨는 그날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고통을 삼켰다. 수요일(8월 1일)은 원래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이니 그 날 밤도 선심 씨는 혼자였다. 새벽에도 30도를 치닫던 그 날, 뜨거워진 대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선심 씨는 정신줄을 놓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만 살아있었다. 더위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활동지원사가 마주한 것은 더위를



먹고 눈이 풀린 선심 씨였다. 병원 가자, 라는 말을 선심 씨가 먼저 했다.

활동지원사가 수동휠체어에 그를 태우고 집 앞 상가에 있는 병원에 갔다. 온몸이 펄펄 끓어 열을 재보니 38.6도. 의사는 진단서에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 또는 경과에 따라 검사 및 입원을 요함”이라고 썼다. 마음 다급해진 활동지원사가 진단서 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 읍소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활동지원사는 선심 씨가 다니는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에게 전화했다. 폭염 속에 선심 씨가 죽을 뻔했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이에겐 응급알림e, 야간순회는 무용지물

지난 8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노들야학 교사들이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선심 씨 집을 찾았다. 새벽에 내린 비로 폭염이 한풀 꺾여 한낮 온도는 ‘34도밖에’ 되지 않았고, 환관문과 베란다 문을 열어놓은 덕에 종종 시

원한 맞바람이 불었다. 게다가 선풍기까지 틀어놓아 나름 가장 시원하게 해놓은 상태였으나, 집은 여전히 충분히 덥고 습했다. 집엔 에어컨도, 쿨매트도 없었다. 그 방에 선심 씨가 가만히 누워 있었다.

선심 씨는 폭염으로 크게 앓으면서 뒤통게야 에어컨을 주문했는데 에어컨은 17일에야 온단다. 그러나 에어컨이 온다고 해도 “혼자 있을 땀 과열될까 무서워”를 수 없다고 했다. 끊임없이 자세 변경을 해야 하는 쿨매트 또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선심 씨에겐 적절치 않았다.

복지부가 ‘활동지원 24시간’ 대신 예산 절감을 위해 내세운 응급알림e서비스와 야간순회서비스도 선심 씨는 이용할 수 없다. 응급알림e를 이용하려면 위급 시에 버튼이라도 누를 수 있어야 하는데 선심 씨는 전화 버튼 하나 누를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야간순회서비스 또한 사회복지사가 새벽에 불시에 찾아오면 문을 열어줘야 하니 이 역시 불가능하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24시간 그의 곁에 있어 줄 활동지원사이나, 이는 현재 선택지에 없다. 그러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24시간 그의 곁에 있어 줄
활동지원사이나, 이는 현재 선택지에
없다. 그러니 생명을 담보로 여름밤을
지새울 수밖에.
아니, 그는 사계절 내내
그렇게 지내왔다.

니 생명을 담보로 여름밤을 지새울 수밖에. 아니, 그는 사계절 내내 그렇게 지내왔다. 겨울에도 활동지원사가 퇴근하고 난 밤엔 체위변경 없이 그대로 누워있었다. 아니, 사실 그는 탈시설한 지난 12년간 내내 그러한 낮과 밤을 보내왔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나 “갑자기 아파지니” 무섭다고 했다. 그가 필요할 때는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걸까. 만약,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사회보장정비방안’이 없었더라면 선심 씨에게도 그러한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 철폐 맞은 ‘활동지원 24시간’... 여전히 회복 안 돼

2014년 송국현·오지석의 죽음으로 활동지원 24시간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거세지자, 서울·인천·대구 등의 지자체는 복지부의 활동지원 시간에 대한 부족분을 시비를 통해 지원하여 최중증독거장애인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나서려고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서 2015년, 서울시는 최중증독거장애인 100명에게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을 시작한다. 당시 서울시가 발간한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에는 향후 “2018년까지 16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보장정비방안’에 막혀 무산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근거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했는데, 이를 지자체 복지 확장의 브레이크로 활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거라며, 지자체 활동지원시행을 가로막았다. 결국 서울시는 대상자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2018년 현재까지도 서울시 내 ‘24시간 지원 대상자’는 100명에 그치고 있다. 시행 4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그 사이 인천에선 사람이 죽었다. 인천시는 2014년 말부터 최중증장애인 3명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고, 2015년부터 대상자를 기존 3명에서 7명을 추가해 10명까지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근거로 한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자 인천시는 7명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취소한다. 그리고 복지부와 의 실랑이 끝에 이듬해인 2016년 2월, 기존 3명에 대한 지원마저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활동지원 24시간이 중단된 후 욕창이 심해진 권오진 씨(전신마비, 46세)는 건강 악화로 올해 6월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통해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으나, 지자체는 여전히 폐지된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을 복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권오진 씨의 죽음 후 인천 장애계가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한 죽음이라며 분노하자, 그제



야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에 10명에 대한 24시간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올해 초 복지부에 다시 '협약'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을 받아 올해 말에서 내년 중에 100명을 추가하여 총 200명까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처럼 지자체에만 책임을 맡겨둘 경우, 지자체 재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계는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정부 차원의 보장은 어렵다고 난색을 보인다. 지난 8월 6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는 "시에서 여유 예산이 있으면 하는 거지, 국비는 제한적이라 국비로 '24시간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심 씨와 같은 최종중증장애인에겐 '지금 당장'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들장애인야학은 더위를 먹어 밖을 나오지 못하는 선심 씨를 대신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8월 6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우리 야학학생 선심 언니,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긴급 진정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노들야학 교장은 "무더위 폭염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은 최종중장애인이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일상적 위험에 대한 '+1'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는 '+1'을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일상적 위험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임시

적 조치가 아닌, 최종중장애인이 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인권위가 복지부에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제도화를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탈시설 기금 2000만 원 쾌적, 건강한 자립생활 꿈꿨지만 다시 방 안에

전라남도 영광이 고향인 선심 씨는 바다 한 번 보지 못하고 40여 년을 방 안에서만 살다가 41살 되던 해,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시설에 들어갔다. 시설에서 3년을 살다가 2006년 8월, 그는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시작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어떠한 복지지원도 없던 시절, '겁없이' 탈시설한 그를 사람들은 '탈시설 장애인 1호'라고 부른다. 이후 그는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며 2006년부터 10년 동안 수급비에서 매달 20만 원씩 모아 마련한 돈 2000만 원을 자신의 탈시설을 지원한 장애인단체에 '탈시설운동 기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지난 8월 5일 방문한 그의 방엔 그가 좋아하는 식물이 가득했다. 그는 몇 번이고 야학교사들에게 배란대에 가득한 화분을 눈으로 가리키며 "애네들 사진 좀 찍어 줘."라고 말했다. 그가 누워있는 침대 벽면엔 그의 취향이 오롯이 담긴 핸드백들이 걸려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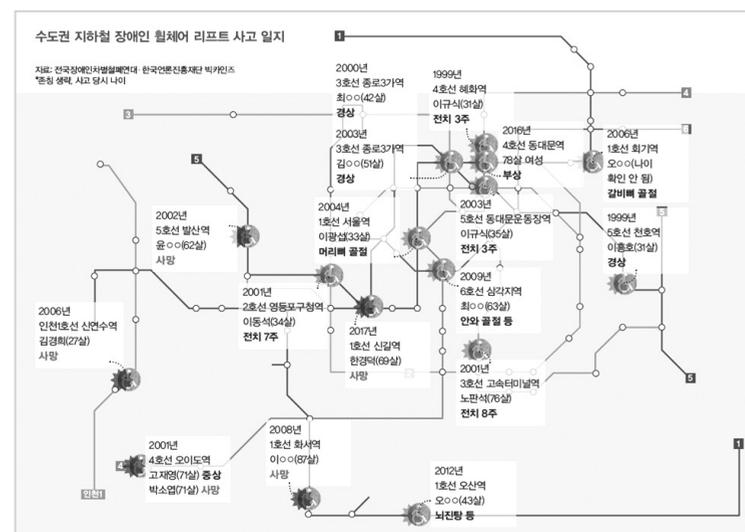
그는 시설에서 지낸 3년을 "꼭 30년 산 기분"이라며 "유리병 안에 갇힌 느낌"이라고 기억한다. (책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 삶창, 2013) 시설에선 가질 수 없었던 개인의 취향과, 그 취향이 담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지 12년, 그는 지금의 이 삶을 더 누리고 싶다. 건강해져서, 활동지원 24시간이 보장되어서 야학에도 더 자주 나오고 싶다. 용감하게 시설을 걸어차고 나왔건만, 지금 다시 폭염 속 11평 집에 갇혔다.

[장판 핫이슈]

목숨을 걸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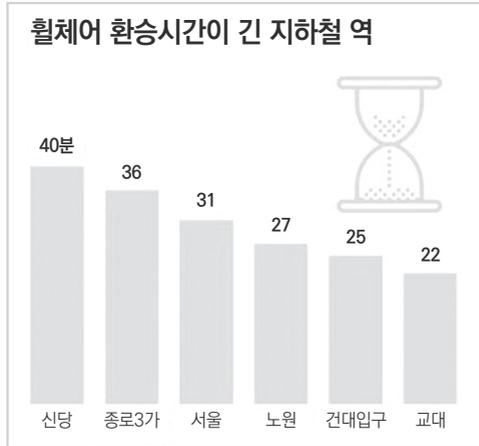


보통 지하철을 타려면 지상에서부터 대합실을 거쳐 승강장까지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행

위의 지하철 노선도에 표시된 내용들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1970년대부터 대중교통이라 불리는 지하철이 개통되며 시민들의 이동 또한 한층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점차 호선과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은 거리와 환승의 횟수에 제한 없이 웬만한 곳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교통약자라 불리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에 제약이 없는 비장애인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탑승을 합니다. 그러나 보행이 어렵거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계단 옆에 매달려 있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평평한 철판 위에 무거운 전동 휠체어와 사람의 몸무게까지 더해진 채 허공에 떠 있는 리프트에 올라타면, 촘촘한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며 천천히 난간을 따라



장애인의 삶 I-SEOUL-U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

2015. 12. 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민관합동 T/F)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사 1동선으로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2015.12.3. 발표)'의 약속입니다.
그 선언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이 1년 이상 협의하여 합의한 사항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2022년까지, 엘리베이터 100%설치 2020년까지

위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계단의 높이에 따라 한 번 오르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5~6분, 길게는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흔들거리는 리프트에서 무섭고 아찔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까지 견뎌야 겨우 지하철에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6~7년 전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수동휠체어에 맞추어 설치되었던 작고 낮은 리프트를 철거하고 전동휠체어용으로 새롭게 리프트를 바꿨다고는 하지만, 사람과 전동휠체어의 무게를 합치면 거의 150~160킬로그램에 육박합니다. 이 무게를 온전히 감당한 채 계단 한 쪽 벽에 매달린 리프트는 공중에서 조금씩 흔들거리며 수십 개의 계단을 더딘 속도로 이동

을 하는데, 그 모습은 허술하다는 느낌을 훨씬 초과합니다. 산꼭대기 사이에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을 널빤지로 된 흔들다리를 오가는 심정이고, 언제 어떻게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매일 느껴야 하니까요.

처음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1999년 4호선 혜화역에서였고, 그 이후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2017년 신길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중 계단 밑으로 추락해 98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실 때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사과를 위한 병문안은커녕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때까지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길역 참사에 대해 유가족과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책임을 인정할 것, 그리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도덕적',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인정과 사과'는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동권 투쟁을 펼치며 목 놓아 외쳤던 구호는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그러면서도 또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2005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들이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률을 근간으로 시내 저상버스와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만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2022년까지도 미설치 되는 역사

* 21개역사

서울교통공사 16개역 (5호선 가리산역, 강동역, 상일동역, 마천역, 종로3가역 (6호선) 구산역, 상월곡역, 봉화산역, 새철역, 대흥역 (7호선) 수락산역, 청담역, 남구로역, 고속터미널역 (8호선) 광명사거리역, 북정역)

수도권환승장 5개역 (수도권 환승장/국토교통부) 영등포구청역(5호선), 고속터미널역, 이수역,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모란역(8호선)

얼마나 더 사람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꼼수 그만 부리고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해 '공개사과'하십시오.

* '계속 배려라' 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항의하기 위해 '지하철 그린라이트' (휠체어 탄 장애인이 일일로 지하철을 승하차하는 평화행진) 투쟁하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김철에 고발하였습니다.

다. 2014년 서울 도심의 중심지인 광화문 역사에 설치된 리프트를 승강기로 교체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출퇴근 선전을 통해 그 당시 양 공사(메트로,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 담당 공무원,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1년간 민간협의체를 진행하며 방안을 모색해 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통해 2020년까지 서울시내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22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약속한 이행 계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21개 역사 중 16개 역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 불가하다며 장애인들을 또 한 번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휠체어리프트로 인해 최소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신 장애인분들은 장애인이기 전에 누군가의 소

중한 가족이자, 동료이며, 친구이기도 합니다. 천만 시민의 대중교통이라 불리는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무관심과 성의 없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 2호선 구의역에서 한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는 한달음에 서울시장이 달려와 그 죽음 앞에 사과를 하고 책임을 인정했지요. 당연히 그래야 했지요. 반면 살인기계인 리프트로 인해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는 모습,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시는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신길역 추락 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개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 장애인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타기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투쟁을 하며 차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르는 몇몇 시민들을 바라볼 때, 제 시간에 이동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답답한 마음에서 그러는 거겠지 생각을 하면서도,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민들에게 1~2시간 정도에 겪는 불편함, 답답함, 화나는 일들이 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매일의 절박함으로 다가옵니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해야 할 권리, 즉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와 가치는 보호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하며, 그 책임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시와 교통공사에게 있습니다. 이동에 있어 단 한 명의 시민도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의 논리에 밀려 위험한 살인기계 리프트로 인해 죽어가지 않도록, 같은 시민으로서 미래의 교통약자로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남겨 두지 않는다 프로젝트 : 상상력이 우리를 구한다

박은선

리슨투데이에서 일하고 모 대학
재난연구소에서도 일함. 일복이 터짐.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포항지진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지진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재난으로부터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묻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리슨투데이의 구성원들은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의 기사 ‘포항지진, 그곳에 장애인도 있다’를 접하고 포항을 방문해서 왜 일부 장애인들이 탈출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고 노들장애인야학이 있는 대학로 건물을 사용하는 다른 장애 해방 단체 상근자들과 함께 재난 대피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글은 포항지진을 경험한 장애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질적연구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2017년 포항지진을 겪은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공유하고 같은 제목의 워크샵의 내용을 공유하려고 한다.

재난(disaster)과 자연재해(natural hazard)는 다른 개념이다. 자연 재해는 태풍, 해일, 지진 등을 일컫는 것인데 만약 인간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면 재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 UN산하 유엔재난위험감 사무국(UNSDR)에서는 재난과 자연재해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재난은 사회적 취약성(vulnerability)이 위험(natural hazard)과 만나서 생기는 개념으로 망망대해에서 일어난 해일은 재난이 아니라 자연재해이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에 해일이 일어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재난이라고 부른다.

즉 한 사회의 재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고유한 취약성을 이해해야만 한다. 취약한 사람들이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체적 제한으로 민첩하게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을 말한다. 또 대피할 수단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도 취약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재난관리는 보



통 예방, 준비, 대응, 회복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장애인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 관리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2004년 인도양 쓰나미,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 후쿠시마 대지진처럼 대형 재난에서 장애인이나 여성, 저소득층이 입은 피해가 크자 재난 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는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 사망률에 비하여 거의 3배 이상 높았고,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사망했는지 추측조차 불가능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난 이전에 존재한 불평등이 어떻게 도시 재난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예로서 저소득층 흑인들의 대피율이 낮았으며, 회복 과정에서도 백인들보다 불이익을 얻었다. 2011년 후쿠시마 쓰나미 때 미야기시의 사망자 50%이상은 65세의 노년층이었고, 장애인 사망율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하여 약 2.3배 높았다. 재난이 발생하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사망자 비율도 높지만 재난 복구 과정에서도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다. 인도양 쓰나미나 아이티 사례에서도 장애인들이 회복 과정에서 배제 된 것을 비판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12년 유엔산

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인천전략을 통해 장애 포괄 재난 대응 목표를 발표하였고 장애인을 재난관리 과정에 참여시키고, 관련 인력들에게 재난 대비 훈련을 시키고, 장애 포괄 대피시설을 구축하라는 제안을 했으며, 2015년 재난위험감사무국(UNSDR)은 일본 센다이에서 센다이 프레임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을 재난 관리 과정에 포함시키고 장애포괄적 재난 관리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 이행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 안전 지대로 일컬어졌으나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 때도 대피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있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 우선 머리를 보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대피하라고 하지만 고층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대피할 방법이 없었다.

누구도 남겨 두지 않는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장애인 4명, 활동보조사 3명, 활동가 1명, 포항지역 공무원 2명 총 열 명과 심층 인

그림_리슨투더시티 박은선, 2018

집 안에서 지진 대피, 상상의 장애포괄 재난 매뉴얼 중



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질적 주제 분석방법(thematic analysis)을 통해 코딩을 하였다. 인터뷰이들이 가장 많이 거론한 내용은 '대피 실패'와 그로 인한 무력감이었다. 주 인터뷰자 중 하나였던 A씨는 근육 장애인으로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데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 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지진 당일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방송으로 테이블 밑으로 숨어서 머리를 보호하고 엘리베이터를 쓰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고 했으나 A씨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동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활동지원사는 하필이면 그날 몸이 아파 병가를 내서 곁에 없었다.

"어차피 거기 있으면 안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해보자 하면서 내려갔었죠. 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다른 보충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래 죽으나 저리 죽으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고 했죠."

지진으로 인한 문제는 2018년 2월 11일 새벽에 일어난 규모 4.8의 2차 지진이었다. B씨는 2층에 살고 있었고 새벽 5시였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냉장고의 내용물이 쏟아지고 천장에서 접시가 쏟아졌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새벽에는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없는 이유'였다.

첫째, 장애 포괄 정보의 부재이다. 청각장애가 있는 B씨는 지진 당일 주요 방송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너무 답답했다고 했다. 또한 당일 어디로 대피하라는 정보도 맹인이나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 들처럼 정보를 바로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안내도 없었다.

둘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부족이다. 김주영, 송국

현, 오지석, 권오진씨의 예처럼 활동지원사가 없어 목숨을 잃은 장애인들이 매해 발생하고 있으나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시는 서울시, 광주, 경기, 충북, 전라남도밖에 없다. 활동지원의 확대는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지만 재난 발생시 대피, 회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지진이 나면 아무 생각도 안나요. 그냥 누가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옆에 누가 있다면 테이블 밑에 숨을 기회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셋째, 엘리베이터를 대체 할 수 있는 장치 및 장애포괄 건축법규의 부재이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1%이며 연립다세대도 14.9%에 이른다. 즉 전인구 75% 이상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지진 발생시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넷째, 재난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 차량의 부재이다. 설사 운 좋게 건물을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다. 현재 포항시 인구 25만명 중에 장애인은 2만6천명인데 포항시의 장애인 콜택시인 '동행콜'은 30대밖에 없으며 그것도 노인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평일은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 운행되고 주말은 오전 8시에서 저녁8시까지 운행되다 보니 평소에도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동행콜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섯째,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피시설의 부재이다. 이번 포항 지진의 대피소는 흥해읍의 흥해체육관인데 한 공무원이 이 시설 자체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예산 부족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큰 지진이 날 것을 예상 못해 인해 대비를 못했다고 한다. 한 활동가는 지진

대피소가 아예 내진 설계가 안되어 있는데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섯째, 장애인들이 어디 사는지에 대한 정보 부재이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지원사, 활동가, 포항시의 한 공무원 모두 포항 지진 이후 중증 장애인들 대부분 포항시에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시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어디 사는지 정보를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독거노인에 대한 피해 여부는 독거노인관리사를 통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요양보훈제도 덕분이라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여러 단체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단체에 직접적으로 관리 받는 장애인들의 정보를 부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활동지원사도 요양보호사처럼 국가 차원에서 적극 관리 지원한다면 재난관리도 수월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일곱째, 회복 과정으로 부터의 배제 등이었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지진 후 포항시에서 개최한 2018 지진 대응 포항시민 대 토론회에 장애인들도 참석했지만 그들은 발언권조차 가질 수 없었다.

"포항시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저희가 갔죠. 토론회 주제가 왜 지진이 발생 했는가 였는데 시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궁금해 했고,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나 묵인 당했습니다."

포항시의 공무원들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국가 차원에서 특수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재난 대비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포항시 같은 지역 중소도시가 장애포괄재난대비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였다.

포항의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들 공무원들은 인터뷰 도중 지진 대피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아이디어를

그림_리슨투더시티 박은선, 2018

비상자의 사용, 상상의 장애포괄 재난 매뉴얼 중



내 놓았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는 이웃의 도움이었다. 지진이 나면 119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출하려 출동하기 때문에 건물에 갇힌 사람들까지 구출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인터뷰이들은 하나 같이 주변 이웃들이 대피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활동지원사는 자신은 A의 집에서 차로 삼십분 넘는 거리에 산다, 아무리 빨리 운전하고 와도 그때는 너무 늦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먼저 대피해 있다가 상황을 파악해서 주변의 중증 장애인들의 대피를 돕는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영화를 편집하고 논문을 정리하면서 장애를 포괄한 재난관리가 가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장애인의 일상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재난 발생시에도 잘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이토록 사회로부터 고립 되어 있는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는 없다. 많은 재난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운 사람일수록 재난에 대한 정보 습득도 많고, 대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런데 장애인이 직업을 가진 비율은 2015년 기준 36.4%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56.6%이다. 평소에 집과 병원, 장애인 복지 시설만 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상 속

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워질 가능성도 낮고, 이웃들과 왕래가 있을 가능성도 낮다. 프로젝트의 결론이자 정책 제안은 아래와 같다.

1. 장애포괄 재난관리가 가능하려면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2. 장애 포괄 재난 방송 및 시각경보 장치가 필요하다.
3.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대 되어야 한다.
4. 엘리베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 의자, 건축물 허가제도 개선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 도구가 필요하다.
5. 비상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 확보를 해야 한다.
6.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진 대피소가 필요하다.
7. 국가는 중증장애인들이 어디에 사는지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8.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대피 할 수 있는 장애 포괄 재난 대피 훈련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한국은 더이상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6.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심리학 용어에 '정상화편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괜찮다고 무마하려는 심리적 현상이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설마 별일이 있겠나 싶은 집단적 정상화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아시아 지역학회에서 발표 하였는데, 샌다이에서 온 교수님 한 분이 요즘 일본은 이웃을 두고나 먼저 도망 가라고 말하는데, 한국은 정 반대 이야기를 해서 놀랍다는 코멘트를 하였다. 실제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당시 미야기현 유리야게라는 마을에 쓰나미가 닥쳐 4700명 중 700명이 사망했는데,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설마 위험할까?' 하는 정상화 편견 때문이었으며, 독거 노인을 보살피려던 사람이 그만 대피 시기를 놓쳐 버린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쓰나미는 15-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피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필요하다. 5.0 초반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포항지진 5.4), 6.0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구분하여 지진 대피 행동 요령과 구출 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능동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 시나리오 워크샵과 상상의 장애 포괄 대비 매뉴얼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는 노들 장애인 야학에 있다. 노들 대학로 건물이 2층이라 늘 맘에 걸렸는데, 4층과 5,6층까지 다른 단체가 이사를 왔다고 하니 이만저만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불이 난다면, 지진이 발생한다면 건물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피 해야 할까? 노들 장애인 야학은 매해 두 번 이상 소방 훈련을 받고 있지만, 문제는 계단이다. 20kg이나 나가는 전동 휠체어의 무게에 성인 남성의 무게를 더하면 남성 활동가 세 명이 들어도 대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워크샵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참가자들에게 각 층

에서 대피 가능한 통로 2개 이상을 확보해 탈출 계획을 세우기를 요구했으며, 현재 사무실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게 하고 서로 결과를 공유하고 화재나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계단으로 나타났다. 노들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는 계단은 두 군데인데 만약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몰린다면 탈출 방법이 없다는 우려를 했다. 2부에는 제시 된 문장에 따라 상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었다.

"20**년 어느 날 규모 6.8 지진(건물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정도의 강도)이 서울 대학로에 발생했다."

대부분 참가자들은 매트나 커튼을 가져와 휠체어에 탄 사람들을 들거나 굴려서 밖으로 대피 시키고 마로니에 공원 공터에서 모인다는 내용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노들야학 교사들과 인해 전술로 날랐다. 연주반 매트 위에 사람을 싣고 비상 계단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진수 선생님은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지진이야~!! 지진이야~!! 사람들에게 전달하세요!! 대피하라고 말해주세요!!"

워크샵 참여자 중에는 건물이 붕괴되고 70만원짜리 보치아 휴통이 부서지며 그냥 다 죽었다는 암울한 내용도 있었다.

"지진으로 인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구조물이 무너져버렸다. 옥상에서 밖을 보았다. 서울은 지옥이 되어 있었다."

그림_리슨투데이 박은선, 2018

시각장애인과 함께 대피소 가는 법



우리가 워크샵을 제한한 가장 큰 이유는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재난 대피 요령과 대피 계획이 중요해진다. 미국의 경우 가정의 대피 계획을 권장하며, 일본의 경우는 각 학교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난 매뉴얼을 학생들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워크샵을 통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재난 시 필요한 장치나 도구뿐만 아니라 정책까지도 상상해 낼 수 있다.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상상한 방법은 슬라이드 혹은 일종의 피난 의자였다. 만약에 노들장애인야학에 피난의자가 보급되고 의자 사용 방법을 익힌다면 구체적인 대피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워크샵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상상의 장애 포괄 재난매뉴얼'도 만들었다. 만약 장애인들 주변에 비장애인 친구들이 많고 함께 있어줄 사람이 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의'라는 표현이 붙었다.

나가며

우리나라 도시는 삶을 구축하는 공간이 아니라 부동

산 개발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기형적으로 발전해왔다. 소수의 이익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재산이 적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도시 공동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샌더콕(Leonie Sandercock)나 아이리스 영(Iris Young)과 같은 페미니즘 도시학자들은 도시의 진실은 주변부에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 도시는 주변화 된 존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도시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공통의 공간을 누가 어떻게 다시 재 전유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상상력의 힘을 강조한다.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도시를 상상하는 힘만이 지금 보다는 나은 도시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리라 생각한다.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진행된 워크샵의 결과물과 영화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상상의 장애포괄 매뉴얼은 우리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두고 가지 않는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상상하고 질문하는 과정이었다. 인터뷰를 담은 영상, 워크샵 결과물과 상상의 매뉴얼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방문하면 되고, 논문은 영문으로 국제 재난 경감 저널에 투고하였다.

[대학로아 같이 놀자]

대학로 편의시설 설치기

김필순

경사로는 이제 그만, 그만 보이길.. 이제 휠체어그네만 보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편의시설 개선 활동은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공구리를 치자'를 통해 마로니에공원 무대 경사로를 만들고,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봤던 대학로 큰길의 무성한 계단에도 경사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과 갈 수 있는 식당, 술집, 카페 등은 늘 손가락 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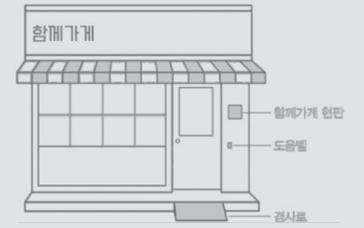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턱과 계단은 일상의 벽이다. 우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늘 생각한다. 그래야 함께 할 곳들이, 함께 놀 곳들이, 함께 일상을 즐길 수 것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 말이다.

편의시설 개선활동 초기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사활동이 주 활동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만 하다가 자연스럽게 세상이 변화되기 기다리다 속이 탄 우리는 3년 전부

터 직접행동을 시작하였다. 세상을 향해, 지역사회를 향해, 상점주들을 향해 '바꿔주십시오', '경사로를 설치해주시오'라고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답은 항상 같았다. 장사가 잘 안돼서 언제 가게를 접을지 모른다, 경사로는 설치되면 좋겠지만 건물주가 허락하지 않을 거다, 내 가게도 아닌데 내가 설치할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직접 말해라. 다들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하고 같은 말들이었다.

그렇다고 3년 동안의 편의시설 개선 직접행동을 하면서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게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온적 없다'라는 얼토당토않은 말들이 사라졌다. 또 편의시설에 대한 상점주, 즉 시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변화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편의시설이 뭔지, 경사로를 왜 설치해야하는지 설명하고 때론 싸우고 했다면 지금



[대학로 경사로]

「함께가게」는 종로구 무장애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대학로 36곳, 세종마을 17곳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경사로 외에 인증현판, 도움벨, 점자메뉴판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연번	구분	상호명	주소	추가 설치물
1	동숭동	LGA(엘가) COFFEE	대학로 12길 92	스탠드형 도움벨/점자메뉴판
2		핏제리아오	동숭길 48번길	인증현판/점자메뉴판
3		은혜미용실	낙산길 6	-
4		반저	대학로8가길 56	부착형 도움벨/점자메뉴판
5		태수	동숭길 78	스탠드형 도움벨/점자메뉴판
6		베스킨라빈스	대학로 116	부착형도움벨/인증현판(내부)
7		GS25 종로방통대점	이화장길 99	스탠드형 도움벨
8		올리브영 대학로중앙점	대학로 144	-
9		죽이야기	대학로 81-1	점자메뉴판
10		이화동	코바코	울곡로 215-8
11	혜화동	N5스타일헤어	성균관로 20-1	-
12		대학로폰마트	창경궁로 258	-
13		혜화세탁소	혜화로 16	부착형 도움벨
14		브라운 에비뉴	혜화로3길 5	점자메뉴판
15		명동도면	혜화로3길 5	점자메뉴판
16		위치스커피	혜화로3길 5	점자메뉴판
17		병천 아우내 순대국	혜화로3길 5	점자메뉴판
18		애니컴	혜화로 24	스탠드형 도움벨
19		KT M&S	창경궁로 237	부착형 도움벨
20		하나은행	창경궁로 254	인증현판
21		건강약국	혜화로 2	부착형도움벨
22		명륜안경	창경궁로 239	부착형 도움벨
23	소나무길	포도원 삼계탕	창경궁로 26길 41-5	부착형 도움벨/점자메뉴판
24		대호식당	대학로 11길 38-3	부착형 도움벨/점자메뉴판
25		청산만두	대학로 11길 19-6	점자메뉴판
26		곱창이야기	대명길 29-3	점자메뉴판
27	성균관대	치킨메니아	성균관로 34	부착형 도움벨/점자메뉴판
28		일송칼국수	성균관로 44	부착형 도움벨/점자메뉴판
29		봄까스	성균관로 25-9	스탠드형 도움벨/점자메뉴판
30		JAZZ&라멘	성균관로 25-9	점자메뉴판
31		올리브영 성균관대점	성균관로 12	인증현판(내부)
32		싱싱오징어바다	성균관로 12	스탠드형 도움벨/점자메뉴판
33		명륜마트	성균관로 58	스탠드형 도움벨
34		건강한 빵	성균관로 1길 6-6	부착형 도움벨
35		도스타코스	창경궁로 29길 5	부착형 도움벨/점자메뉴판
36		단골식당	성균관로 9-1	스탠드형 도움벨/점자메뉴판

은 많은 사람들이 편의시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가 늘 문제였다. 그래서 노들센터는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 줄기차게 종로구청에 예산을 요구했고, 마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기회를 만들었다. 물론 '딱 나와라 딱딱' 하면 떨어지는 예산이면 좋겠지만 종로구는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매우 부담스러워 했고, 이리저리 핑계 대기에 바빴다. 그런 종로구청을 쫓아 다니며 그 예산을 우리가 쓰겠다, 왜 만들어진 예산도 쓰지 않으나, 그 예산이면 지역사회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매우 귀찮게 만들었고 결국 주민참여예산으로 경사로 설치하고, 휠체어 그네를 설치하고, 지하철역에 급속충전기도 설치했다. (우하하)

지난 일년간 대학로를 조사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과정의 성과는 물론 설치된 '경사로 숫자'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이 숫자를 발굴하고, 참여동의서를 받고, 설치모니터링을 한 이들이 장애인당사자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였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상점주에게 설치제안서를 전달하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던 이들이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하고, 제안하고,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을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로 만들어냈다는 점이 경사로 숫자 이상으로 큰 성과였으며 그 과정에서 권익옹호활동가들의 성장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대학로 편의시설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좀 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사는 꿈을 깊게 가져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익힌 활동들을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가는 힘으로 가져가볼 생각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턱과 계단은 일상의 벽이다.

우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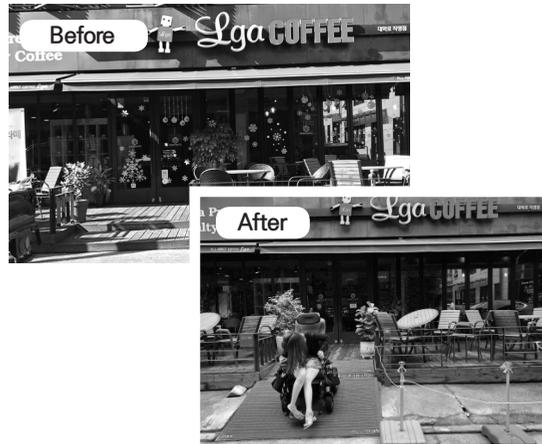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늘 생각한다.

그래야 함께 할 곳들이, 함께 놀 곳들이,

함께 일상을 즐길 수 것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 말이다.

대학로 함께가게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급속충전기는 중요한 이동수단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현재 서울시 정책요구안에도 포함되어있는 지하철 역사 급속충전기를 종로구 무장애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종로구 관내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선로	역	위치	장소	위치
1호선	종각역	지하1층 고객센터 옆	광화문 해치마당	중앙 기동
	종로3가역	12번 출구	종로구청	1층 민원실
	동묘역	상선 승강장 2-2	종로보건소	2층 EV옆
3호선	안국역	지하3층 대합실	장애인통합회관	3층 EV옆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방면 승차권판매소 옆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
	동대문역	8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지하1층		

Tip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또다지하철' 앱은 민원신고를 비롯하여 지하철 역사의 편의시설 정보 및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급속충전기 위치, 승강기점검 정비현황 등)를 제공하고 있음.

[휠체어그네]

마로니에공원에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로 이용가능한 휠체어그네가 설치되었다. '휠체어그네'라는 단어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놀이기구로 한정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가능한 놀이기구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이용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놀이시설 관련법에는 '장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통합놀이터의 방향을 제시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놀이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마로니에공원 내 휠체어그네는 24시간 이용가능하나 현재 안정상의 이유로 잠금장치는 있다. 비밀번호는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인 0420이다. 많이 이용해서 잠금장치 따워 없는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가기 제안한다.



“권영진 시장님, 마음 푸세요~”라고 하면 풀리실 건가요?

전근배
대구사람장애인지원센터

잘못하면 규탄하면 된다. 이해 못하면 설득하면 된다. 안 만나주면 찾아가면 된다. 근데, 근데! 빠치면 답이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 말이다. 그는 한 번도 솔직한 자신의 심경을 우리에게 털어놓은 적 없다. 하지만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단단히 토라져 있다고. 지난 7월 2일, 당선 후 처음 시청으로 출근한 권영진 시장은 농성장을 방문했다. 꼭 농성 보름째였다. 그리고는 1시간 동안 대표단의 요구안 설명에 대해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이렇지(농성하지) 말고 자기를 믿고 그만 돌아가시라고, 협약은 원래 지지하는 단체와 후보가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특정단체와 협약할 수 없다고. 그러고는 획 가버렸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한 말이 활동가들의 더 마음을 췌~하게 만들었다. ‘그 일’로 당신들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상처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다. 무슨 뜻일까.

대구 동지들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2월부터 420장애

인차별철폐투쟁을 시작했다. 희망원 등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강화,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계획 수립 등 요구안을 3월에 이미 발표하고, 예비후보자들부터 하나씩 만나 협약을 맺었다. 그렇게 5월이 되었고, 권영진 후보 한 명이 남았다. 권영진 후보는 이번에 시장으로 최대한 있다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당내 경선이 끝나 정식 후보로 내정된 뒤에는 다시 시장직 복귀를 했다, 그 뒤에 정식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시장 → (예비)후보 → 경선 승리 → (다시) 시장 → (정식)후보로 왔다갔다한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새누리당은 제대로 선거 운동 안해도 대구에선 이길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있다’고 비판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그는 후보가 아닌 시장직임에도 선거운동을 하다 선거법에 걸려 현재 재판에 들어가 있다.

어쨌든, 과정이 복잡했던 말이다. 여기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는 시장시절에는 ‘후보 등록하면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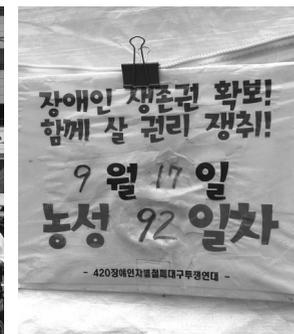
약에 대해 의논하자’고 했다. 그러다 예비후보 시절에는 ‘검토 중이다’고 하더니 경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으로 돌아갔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정식 후보로 등록된 뒤 5월에 만났을 때에는 ‘협약을 위한 의논을 시작하자’고 했다. 5월 25일이라는 협의 마감 시기까지 정해서 말이다. 그렇게 원안은 아니었지만, 어렵게 수차례 문구를 서로 합의하여 협약안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시 검토 중’이라고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에는 협약하자’고 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아침까지도 협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5월 31일, 대구 중심지인 반월당에서 권영진 후보의 선거운동 출정식이 있었다. 보름이 채 되지 않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협약을 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을 내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애가 탄 장애인당사자들과 부모 활동가들이 권영진 후보 선거운동 출정식을 찾았다. 무릎을 꿇었다. 비굴하게 협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영진 후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깨닫고 책임감을 가지길 원했다. 하지만 그는 짧은 인사를 마친 후 유세지를 바로 떠나려고 했다. 한 어머니가 황급히 떠나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뒤로 벌러덩 쓰러졌고, 순식간에 유세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온갖 욕설 속에 우

리는 착잡한 심정을 숨겨야 했다. ‘유세 중 폭행’, ‘난입’, ‘침입’, ‘선거방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들이 경쟁하듯 기사를 뿔어냈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후보 캠프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후보의 꼬리뼈에 금이 가는 중상으로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며, 이 사태를 ‘명백한 테러’로 규정했다.

바로 420투쟁 대표단은 긴급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며, 모든 과정을 제쳐두고서라도 후보가 다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권영진 후보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들끓었다. 더불어 ‘선거 테러’라는 고전적인 몰아붙이기 프레임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비록 장애인 당사자들과 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던 이유에 대해 다루는 언론이나 시민 댓글은 없었지만, 그래도 왜곡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불싸! 하지만 그게 우리만의 생각이었다. 권영진 후보가 그 때부터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다. 아니 그전부터 협약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호했던 태도가 분명해졌다고 해야 할까. 그 때부터 우리는 ‘특정단체’, ‘폭력단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단체’로 권영진 후보에게 찍혔고, 당선 이후까지 냉담한 눈초리를 받고 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 후, 처음 만난 날이 7월 2일이었다. 사실 기대했지만 역시 그는 냉소적이었다.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협약할 수는 없다, 시정 반영을





위해 노력할테니 농성을 중단하라, 한 장애인단체와 협약하는 것은 다른 장애유형 단체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식의 공식적인 약속을 거부하는 사유만 반복한 채 자리를 떠났다. 420투쟁단은 “권영진 시장은 대화하려는 것인가, 통첩을 보내러 온 것인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라는 비평을 발표했다. 동시에 개탄했다. “(민어달라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후보등록하면 의논하자”던 3월의 권영진 시장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적극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던 4월의 권영진 시장을 믿어야 하는가. “본 후보 등록 전에 협약하자”던 5월의 권영진 시장을 믿어야 하는가, “후보사무실 앞 농성을 종료하고 의논하자”던 6월의 권영진 시장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농성장을 직접 찾아 협약서에 서명하며 장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2014년의 시장을 믿어야 하는가!”

물론 이것은 ‘삐뚤다’는 것은 ‘카더라 통신’에 가깝고, 공식적인 시민사회의 평가는 별도로 있긴 했다. 예를 들어 촛불 정국 속에서 대구경북은 보수 정당의 색을 분명히 하며 자기 세력을 결집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때문에 권영진 시장 역시 민선 6기 때의 비교적 새누리당 내 개혁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행보와는 달리 민선 7기 후보에 나서면서는 420투쟁은 물론 대구의 어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하는 협약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기초 자체를 보다 보수적으로 분명히 한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420투

쟁단이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할 때에도 그는 기자들을 초청하고 보수 장애인단체들을 결집시켜 지지 선언하는 자리를 가질 정도로 공세적인 자세를 보였다. 물론 이 지지선언에 나선 장애인단체들의 협의체는 5월 31일 사건에 대해 ‘소수의 과격장애인과 몰상식한 한 개인 여성의 일탈행동’으로 치부한 대구의 내로라하는 단체들이었다.

상황이 좋지 않다. 장애인 부문을 넘어서는 여러 정치적이고도 정서적인 맥락 가운데 대구시청 앞 농성투쟁이 놓여있다. 물론 대구의 농성장 지킴이 활동가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한다. 권영진 시장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이번 여름을 겪으며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다. 활동가들 절반 이상이 얼굴이 새카맣게 탔다. 물을 잘못 먹어서 지킴이 활동가들 사이에 장염이 유행하는가 하면, 농성장 아스팔트에 수돗물을 부리는 새로운 농성문화(?)도 생겨났다. 바람에 천막이 부서지다가 하면, 대충 수선해 놓은 천막에 밤새 비가 내려 완전히 내려앉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농성장처럼 몽골 텐트를 구입하여 장기전을 대비했지만, 이런 알록달록한 계절을 적어도 3번은 더 겪어야 한다니. 그래도 힘이 나는 건 언제나 파이팅해주는 전국의 동지들 때문이다. 노들을 비롯한 전국의 동지들께 대구의 ‘장애인 생존권 쟁취! 함께 살 권리 확보!를 위한 농성’(약칭 ‘함께 살자 농성’)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옆에 있어 달라 당부 드린다.

1842번의 하루를 새기다

광화문 농성 기념 현판식

진수

낮엔 따뜻하고 밤엔 쌀쌀한 요즘. 환절기라고 하는데, 계절이 바뀌는 거라고 하는데, 이 즈음의 날씨가 전 정말 좋아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광화문 농성을 중단한 지 1년이 됐다. 다들 알다시피 농성을 중단했던 이유는 그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성장으로 와 3대 적폐 완전 폐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복지부와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은 장관협의체 구성에 협의했다) 여기에 더해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1842일의 농성을 기념하는 현판을 광화문 지하도에 달기로 한 것이다.(박원순 시장과 약속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3대적폐 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다시 차렸고 농성 중단 1주년을 기념하여 광화문으로 현판을 직접 달려 갔다. 현판식은 2018년 8월 21일 광화문 농성장 옛터에서 진행 됐고, 예상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 되지 않았다. 현판을 달려 하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직원들이 달려들어 막으려고, 주위의 활동가들은 그들을 막아섰고 ‘서울 시장이 약속했다’라고 외쳤다.

나는 그날 현판을 벽에 다는 역할을 맡았는데, 다행히도 주위의 많은 동지들의 힘으로 현판을 무사히 달 수 있었다. 아무튼 그 덕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그 덕이라 하면, 현판을 달았으니 그날 현판식과 그 후의 이야기들을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청탁을 받은 것이다.

무엇을 써야 하나 고민 끝에, 문득 1842일의 첫 날. 그 하루가 궁금했다.

“이들은 2012년 8월 21일, 광화문역사 지하차도에서 10시간이 넘는 경찰과의 사투 끝에 은박 스티로폼 깔개 한 장을 깔고서 농성을 시작했다”(출처: 비마이닝)

“이들은 2012년 8월 21일, 광화문역사 지하차도에서 10시간이 넘는 경찰과의 사투 끝에 은박 스티로폼 깔개 한 장을 깔고서 농성을 시작했다”



‘10시간의 싸움과 한 장의 은박깔개.’ 2012년 8월 21일. 그 날 나는 그곳에 없었지만, 그 하루를 애써 그려 본다면,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얗게 빛나는 은박 스티로폼일 것이다. 나에게 농성 첫날의 마지막은 바닥에 깔린 빛나는 은박스티로폼의 이미지 위에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치열했던 하루를 은빛 잉크 삼아, 우리의 몸을 못 삼아, 그 날의 하루를 그곳에 깊게 새기는 일인 것 같다. 그 날 이후로 광화문엔 농성장이 세워졌고, 저마다의 하루가 그곳에 보태졌다. 그리고 그렇게 1842번의 하루가 쌓였다.

현판은 아마 그 날부터 시작 됐는지 모른다.

‘1842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외칩다’ 광화문 현판의 문구다.

그곳에 1842번의 하루가 있고 그 안에 당신의 하루가 있다. 그날의 하루는 나쁜 제도로 인해 죽어간 영정들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하라는 외치는 날이고 그런 외침들이 모여 세상에 없는 말을 만드는 날이다. 그렇게 당신의 하루가 만든 말은 힘을 갖고 세상에 퍼져 약속이 된다. 당신의 하루는 세상에 없는 말을 만든다.

당신의 외침과 하루가 만든 말과 약속, 그것은 잘 지

켜지고 있는가? 3대 적폐는 폐지되고 있는가? 없애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삶이 바뀌지 않는 한 폐지는 폐지가 아니다. 지금까지 민관협약체 회의를 통해 드러난 그들이 주장하는 폐지에는 장애인의 삶을 변화 시킬 어떤 것도 없다. 장애등급제는 중경이라는, 등급에서 정도의 말로 바뀌었을 뿐이고, 부양의무기준의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폐지에 관한 계획은 나온 것이 없다.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탈시설 관련 예산에 관한 얘기 또한 어디에도 없다.

광화문 농성장을 지킨 당신의 하루가 세상에 없는 말을 만들었다면 그 후에 이어지는 청와대 농성장을 지킨 당신의 하루는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장애인이 완전하게 지역사회에 통합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 살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 일이다. 폐지 후의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세상은 장애인의 삶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1842번의 하루가 새겨진 현판이 광화문에 있다. 그리고 3대적폐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농성장엔 우리의 하루가 쌓여 가고 있다. 앞으로 몇 번의 하루가 그곳에 새겨질 것인가? 횡수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하루가 이제 그곳에 있다.

노들과 베델 - 배움의 공동체, 운동의 공동체, 연구의 공동체

유기훈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 공학, 인류학, 의학 등을 떠돌다가 노들장애인야학에 입성하였다. 야학과 병원의 언저리에 머물며, 억압하는 의학이 아닌 위로하는 의학을 꿈꾸고 있다. 노들장애인야학 바로 앞에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산다.

노들야학 세월만큼
우리들의 나이는 춤을 추고
공부하고 급식 먹고 투쟁하며
함께 노래 부르고
내 이름을 처음쓰고 내 일상을 물어주는
이곳에서 우리는요
나의 삶을 노래하네 나의 삶을 보낸다네

- 노들음악대, 「노란들판」 中

신입교사라는 이름으로 노들이라는 공간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게 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노들의 일상엔 노래 「노란들판」의 가사처럼, “공부하고 급식 먹고 투쟁하며 함께 노래 부르는” 날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노들에서의 하루하루로, ‘배움’과 ‘운동’을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움의 공동체이자 운동의 공동체인 노들. 이러한 노들에서의 6개월을 뒤로하고, 저는 야학의 방학 중 약 한달 간 일본 홋카이도 베델의 집에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곳에서도 저를 처음 맞이해주는 것은 노래였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자연구와 정체성 함께 쓰기

베델의집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장애와 함께, '동료'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실천해온 공동체입니다. 환청이나 환시, 망상을 없애야할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이런 환청과 환시, 망상을 지닌 존재로서 마을에서 동료와 어떻게 관계 맺을지를 고민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환청을 '환청 씨'로, 망상을 '경험'으로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웃는 과정 속에서, 관계로 인해 꾸짖는 환청이 칭찬하는 환청으로 바뀌기도 하고 환청 씨와 친구가 되기도 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사자 연구'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베델의 집에서는 20여 명의 당사자와 스태프, 당사자-스태프 등이 모두 화이트보드를 중심으로 둘러앉습니다. 그 곳에서 모두 '스스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연구 시간에 사토 씨는 "물 마시는 것을 멈출 수 없어 하루에 8개 페트병 분량의 물을 마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공유하였고, 이에 모두가 걱정과 웃음이 섞인 탄성을 지릅니다. 그 원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끊임없이 환청 씨가 물을 마시라고 지시한다는 사토 씨의 대답이 이어지고, 사회자는 혹시 지금도 환청 씨가 있으신지, 있다면 여기 있는 모두 함께 환청 씨와 대화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20명의 동료들이 사토 씨의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 혹은 '자아'의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가 토론하고 해결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당사자 연구 시간이 됩니다. 사토 씨는 동료들이 찾아준 대응방식에 대해 환청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동료들은 그러한 사토 씨의 노력에 대해 다시 응원하고



지지하며, 새로운 방향으로의 피드백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사토 씨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동료와 함께 써내려가는(Co-author) 작업이 됩니다.

배움의 공동체(夜學), 운동의 공동체(野學) 그리고 '연구의 공동체'

이러한 베델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것은 노들에서 체험한 '배움의 공동체', '운동의 공동체'와는 또 다른, '연구의 공동체'였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오픈하고 곁에 있는 또 다른 '스스로에 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연구(Co-research)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갑니다. 공부도 아니고, 훈련도 아닌, '연구'라는 절묘한 이름하에 각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는 모두의 기억이 되고 선행연구(reference)가 되어 공동체성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공동연구' 속에서 개인은 위로받고 안심하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갈 위안을 얻습니다.

1970년대에 활약한 「푸른잔디회」라는 뇌성마비장애인 집단은 '사회활동을 하기 전에, 우선은 거울 앞에 알몸으로 서라'라고 말한답니다. 뇌성마비로 변형된 자신의 몸을 직시하라고. 그것이 끝나고나서 사회에 나가 운동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거울 앞에 섭니다. 그것을 반복하라고 합니다. 저의 이미지로서는 최근의 장애인운동은 거울 앞에 서는 쪽을 잇기 시작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운동이나 SST(사회기술훈련)처럼 세상을 바꾼다든지, 자기개혁을 해나간다든지 '바뀌서 더욱 가치가 있다'와 같은 부분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것이 「푸른잔디회」 뒤에 등장한 80년대 이후의 자립생활운동의 대약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마초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뀌서 더욱 가치가 있다'를 힘차게 끌고 나가다 보니, 어느 샌가 자신과 동료를 두고 가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던 것입니다.¹⁾

1. 石原孝二.(2013). 当事者研究の研究. 東京: 医学書院. 내에 수록된 「인터뷰 - 당사자연구가 생기기까지」 중 구마키이 교수의 발언에서 인용. 강조 필자.

'연구의 공동체'가 말해주는 것들 - 운동과 쓸쓸함에 대하여

'노들'이라는 배움의 공동체, 운동의 공동체에서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내며, 이 공간이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안식처고, 관계의 장이며, 희망과 열정을 보여주는 장소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끔은 이러한 '배움'과 '운동'이라는 단어가 갖는 힘찬 전진의 그늘 속에, 개인 내면의 '슬픔'이나 개인의 '고뇌'는, '배움'에서도, '운동'에서도 말해지고 돌보아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420의 힘찬 투쟁, 그 복거거림 뒤에 집에 돌아와 느낄 개인의 쓸쓸함은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기에 우리의 '공적 투쟁' 속에서 다루어질 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쓸쓸함'이 공동의 연대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을 베델이라는 '연구의 공동체'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에서 쓸쓸함을 공유하는 방식은, 개인의 마음을 타인에게 털어놓는 일상적 행위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쓸쓸함은 그 개인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진행

하는 각자의 '연구들' 속에서 공동의 기억으로 들어오고 얽히며, 서로를 응원하는 어떠한 '마음의 연대' 혹은 '약함의 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로써베델은 (베델의집에서 발행한 한 책자의 이름처럼) 『안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연구의 공동체'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배움과 운동의 공동체'로 돌아오며, 문득 '배움의 공동체', '운동의 공동체'라는 힘찬 전진이 주는 해방감과 함께, 그 뒤에 찾아오는 쓸쓸함이나 울적함 까지도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없이 약한 우리의 너무나 개인적인 마음들이 또 다른 '마음의 연대', '약함의 연대'를 맺는다면, 우리는 보다 『안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 않을까 런지요.

수업이 끝나고, 광화문에서 투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개인의 마음의 헛헛함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연대를 건넬 수 있을까요.

박종필 감독 1주기, 그를 기억하는 우리의 방법

조한진희(반다)

2005년부터 다큐인에서 활동했다. 건강 때문에 휴직을 했고, 수전증이 생긴 이후 영상언어 대신 문자언어로 말하고 있다.

“추모제에서 포럼을 해요?”
몇 차례 신기하다는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눈빛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박종필 감독 1주기 추모제를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포럼이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그렇듯 함께하던 가까운 동지, 벗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손가락이 부족할 만큼 반복된 그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텅 빈 공간으로 남는다는 것일요. 죽음은 생명의 소멸이므로, 죽음 이후 존재의 공간은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채워야 하는 건 살아 있는 자들에게 숙제로 남겨져있더군요.

흔히 죽음은 존재의 끝이고 관계와의 단절이라고 말해집니다. 죽음은 뒤돌아보지 않지요. 살아 있는 자들만이 떠나보낸 자의 죽음을 돌아 볼 뿐.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정리 할 것인지의 남아 있는 자들의 선택입니다. 단절로 끝낼 수도 있지요. 그게 꼭 나쁜 것도 아

니고요. 잊혀 질 권리를 이야기하며, 완전한 소멸을 소망하는 이들도 가끔 봅니다. 그러나 저는 활동가들의 죽음은 좀 달라야 한다고 여기게 됐습니다.

활동가의 경험과 고민은 공공재

한 명의 활동가가 불현듯 떠난 자리, 그가 해왔던 활동의 경험과 어렵게 진전시킨 고민들도 무심히 사라지는 것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운동 사회에서 활동가 한 명 한 명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특히 10년, 20년 오랫동안 함께 한 활동가가 여러 현장 속에서 길어 올리고 성장시킨 살아 있는 고민들은 운동 사회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기록되고 누적되지 못한 채, 육신과 함께 먼지처럼 소멸되어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뒤에 오는 이들은 다시 똑같은 고민을 '0'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탄식, 좌절, 희열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

든 활동가의 운동 경험과 고민은 공공재이고, 공공재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박종필 감독은 20년 동안 장애인, 홀리스, 세월호 등의 현장을 온 몸으로 관통했습니다. 몸의 일부가 된 카메라와 함께요. 그리고 그의 몸에는 카메라만큼의 무게로 쌓인 경험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현장과 동료로부터 배우고 얻은 것들입니다. '투쟁 현장에서 카메라는 어떤 위치여야 하는가, 카메라의 피사체가 되기도 하는 존재들과 평소 동료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다큐멘터리로 사회를 기억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활동의 조건은 무엇인가, 영상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구조는 무엇인가, 변화하는 미디어 운동과 배급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고민을 진전시키며 조금 더 나은 답을 만들어 낸 것도 있고, 고민을 머금고 있었을 뿐 적당한 해안을 찾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의 경험과 고민도 여느 활동가들처럼, 여러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현장 투쟁에서 승리나 좌절을 맛보면서, 동료들과 토론 속에서 깨지면서, 선배들로부터

더 조언을 겸연쩍은 표정으로 들으면서 차곡차곡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몸을 관통하며 채우고 발전시킨 것들은 영상, 장애, 홀리스, 세월호 운동 등에서 여전히 유효한 혹은 치열한 고민들입니다.

공유재화하는 시간으로서의 포럼

1주기 추모포럼 '박종필의 카메라, 이것이 액티비즘이다!'는 그의 활동을 공유재화하는 시작이었습니다. 포럼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박종필 감독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가 풀지 못했으나 현재까지 유효한 고민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포럼은 올해가 첫해였던 만큼 박종필 감독의 활동을 기록하고 의미화하는 것에 꽤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주로 동료 활동가로 구성된 발표자들은 운동의 흐름 안에서 그의 활동을 꼼꼼히 밝혀주거나, 변화하는 사회나 영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흔들리는 모습까지 정리해주었습니다. 폭넓은 기록이었고, 여러 의미를 새롭게 짚어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추모 1주기 차별에 저항한故 박종필 감독



추모 포럼
박종필의 카메라, 이것이 액티비즘이다!

외로운, 거절당한, 캄캄한 거리의 카메라였던 영상활동가 박종필 감독이 떠난지 1년, 그의 활동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로 확장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현재 카메라로 액티비즘을 고민하는 영상활동가와 감독, 그리고 영상을 통한 운동의 확장을 고민하는 사회단체 활동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여는마당
사회 송윤현_다큐인
영상 추모영상 상영
발언 문종택 (故문지성 아버지, 416TV),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박경석 (박종필추모사업회(준) 공동대표)
공연 416합창단

★추모포럼
사회 조한진희(반다)_ 박종필추모사업회(준) 집행위원장

발제
- 박종필과 나, 그리고 장애인운동 (김도현/ 노들아학 교사)
- 장애인인 카메라 들기가 힘들다 (최재호/ 장애인문화공간 대표)
- 카메라 뒀던 영상활동가 박종필을 기억하며 (이동현/ 홍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박종필의 액티비즘과 변화하는 배급환경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 미디어운동 흐름 속에서의 박종필 (최은정/ 미디어액트 정책팀장)

토론
- 최성규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 김일민 (감독, 연분홍치마)
- 오지수 (감독, 416미디어위원회)

일시 2018. 7. 27(금) 3시
장소 콘텐츠키리아랩 컨퍼런스룸
(종로구 대학로 57번지 홍익대 대학로 캠퍼스 10층)
주최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박종필추모사업회(준)
문의 다큐인 docuin.pil@gmail.com

보고싶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보다 직접적으로 미디어 운동 맥락 속에서의 박종필 감독의 활동을 조망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아닙니다. 장애, 홀리스, 세월호 이외에 또 다른 의미로서 '영상 현장'에서는 어떤 활동과 고민이 있는지, 다양한 영역 활동가들이 함께 듣는 게 의미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상활동가들에게 영상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그들의 고민을 얼마나 함께 했는지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전달 받았던지, 일부 참여자와 발표자들은 이런 소감을 전해 주었습니다.

"영상활동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 "영상활동가를 카메라처럼 대했던 것을 반성해야겠다", "영상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만 고민해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 처음으로 영상 운동 밖 활동가들 앞에서 발표해서 시원했다", "술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주제들이, 드디어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 같다".

운동이 결국 연대라면, 계속해서 서로에게 잘 의존하면서 힘을 주고받으며 나아가길 바란다면, 서로가 어떤 고민과 조건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대가 소진과 소모의 과정이 아니려면, 각자가 발 딛고 선 '투쟁'을 두루 살펴보는 폭넓음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장’으로서의 추모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올라 걱정했습니다.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고 지루한 자리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포럼 공간이 썰렁하게 느껴질까 봐 50석 남짓한 자리만 남기고 의자를 구석에 접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포럼이 시작되기도 전에 꽂차버린 좌석 때문에 수십 개의 의자를 다시 펼쳐야 했습니다. 추

모문화제도 무대를 보며 준비된 막걸리와 전을 삼삼오오 앉아 먹기에 딱 알맞은 만큼, 마로니에 광장이 채워졌습니다.

장례식도 아닌 1주기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에 놀라움을 표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박종필 감독이 생전에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았으며 유쾌하게 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겨우 1년 사이 박종필 감독의 괴팍한 성격을 잊었거나, 그의 수많은 적들이 기억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모인 것 같다는 농담을 하는 이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아마 다 맞는 말이겠지요.

알다시피 한국에서 장례식이나 추모제 같은 행사는 추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박종필 감독을 매개로 홀리스운동과 연결되어 있거나 장애 운동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종필 감독이 떠났다고 그 운동과 연대하던 관계와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 발걸음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평소엔 각자의 현장이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이렇게라도 박종필 추모제에 와서 홀리스운동에 대해 잠시라도 듣고,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을 만나고,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추모제에 와서 관계를 확장하고, 연대의 끈을 조금씩이라도 엮는 데 손 보태고 연루되고 싶어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추모사업회가 어떤 개인이 얼마나 훌륭한 활동을 했는가에 많은 초점이 맞춰지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모제의 목적은 한 개인의 삶을 박제하는 게 아니라, 현재화 하는 것일 테니까요. 제가 아는 한 박종필 감독은 잊히는 것보다 좋은 영상활동가로 기억되지 못하는 게 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상활동가로 기억되지 못하는 것 보다 더 싫다며, 얼굴을 찡그리는 건 어떤 것일까 짐작해 봅니다. 아마도 본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소환하다가 마무리되는 추모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추모제는 자신에게 무용하다며, 안했으면 좋겠다고 조금 냉랭하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견 속에서 연대의 힘을 가꿔가는 자리. 까칠하고 괴팍했던 박종필 감독에게 어울리는 추모제 모습입니다.

박종필 감독의 동료들이 폭넓게 기록한 1주기 포럼 자료집 『박종필의 카메라, 이것이 액티비즘이다!』는 노들아학 홈페이지 [자료실 - 정책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형님 한 말씀]

「노들야학」 김명학. 노들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들 장애인야학이 25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갑니다. 이제 장년이 된 노들야학
많이도 성장했습니다. 그 옛날의 노들야학이 생각이 납니다.
아차산에 있는 정림회관내 체육관 탁구장 뒤편은, 장애인
분들이 탁구를 치시고, 땀뻘 가운데를 천으로 가르고 두반
을 만들어 수업들 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허
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땀뻘 한거 하나도 없는 노들야학이였
습니다. 그래도 초창기 그 시절대로 좋았습니다. 정서적인 면
도 있고, 좀 가는 했지만 (물론 지금도 가는 하지만) 그무엇인가 끈끈
한 정들이 있었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또 다른 정서들과 정들이) 그
시절에도 있었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고 그립다. 그 시절들이. 사람냄새
가 나는 공간 노들야학. 4의 생각, 가치관등을 바꾸게 한 노들야학.
나에게 많은 것을 준 노들야학. 종종 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나에게 알려 준 노들야학. 그래서 나
는 노들야학이 좋습니다. 그런 노들야학이 25살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을 해 든든합니다. 노들야학과
함께 수업도, 투쟁도 힘나고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노들야학은 그때도 그렇게 좋고 지금도 이렇게 좋고
그렇게 노들야학과 맺은 인연 소중한게 간직하면서

수업도 투쟁도 하면서 노들야학 우리 함께
갑시다. 가다가 힘이들면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처럼, 그렇게 갑
시다. 또한 노들공간의 역할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노들야학의 공간이 좋고, 장애계의
회의나 각종 세미나, 행사들 관련한 논의들도
이루어 지고 있는 노들야학 공간이 나는 참 좋
습니다. 노들야학 25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노들야학이 우리 곁에 있었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노들야학 파이팅!

하나의 뿌리에서 펼쳐진 노란들판

사단법인 노란들판 새 이사장 양현준의 인사



양현준

나는 마음이 여립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합니다. 그런데 나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1993년 8월 노들장애인야학이 장애인교육의 문제를 시발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에 급속한 파급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를 갈구하며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노란들판에는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유한회사, 사회적기업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 노동, 문화, 자립생활 등의 영역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우리 노란들판공동체 분야 구성원들의 우산 역할을 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노란들판을 만들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역할에 대한 회의감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생각했던 고민과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며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올곧

게 세우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분화되기도 하고 또다시 통합과정의 논의가 형성되기도 하고...분화와 통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란들판은 하나의 나무였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다양한 줄기와 꽃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천은 하나의 나무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들판 원천의 가치는 참된 노동에 의한 땀의 대가로 결실을 만드는 농부의 철학을 견지해 왔다는 것을..

노란들판 공동체 원천의 가치를 확인하며 법인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힘 쏟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노란들판 이사장 양현준



[노들야 안녕]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고은

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님과 헤어져 시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위 도움을 받고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재미있게 주변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웃고 살다 보니 세월이 훌쩍 흘러 벌써 성인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탈출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러던 중에 용산센터 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금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

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였고, 현재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영미언니와 노들 야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글도 배우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야학은 조금 더 세상에 가까워지는 다리와 같습니다. 야학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한 필수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고 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노들야학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들아 안녕]

만남의 공동체, 노들



김형근

만약 삶에도 본질이 있다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모든 우리 삶은 만남의 연속이며, 나는 너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이 되었고,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를 우리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제 삶을 회상해보면, 가까이 있는 내 안에 있던 사랑의 씨앗을 피워주신 나의 어머니에서부터, 어릴 적 친구들, 함께 공부했던 모든 너들,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준 책 속의 정신들, 그리고 나를 언제나 부끄럽게 하는 전태일 까지. 지금의 저 자신은 모든 이들과의 만남의 총체에 다름 아니며, 앞으로의 저는 미래의 너들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제게, 삶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이런 생각을 지닌 제게 노들은 온전한 만남의 공동체였습니다. 노들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의 부름에 성실히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김성봉에 따르면 우

리는 부름과 응답이 교차하는 만남 속에서 자기가 되며, '우리'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너'가 될 때 비로소 그는 자기를 자기로서, 다시 말해 '나'로서 의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르는 자와 대답하는 자는 부름과 응답 속에서 너와 내가 되고 또 우리가 됩니다. ... 그 속에서 주체는 부름받는 '너'이면서 응답하는 '나'이며 부름과 응답 속에서 생성되는 '우리'인 것입니다.”

노들은 부름과 응답이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활발히 오고가는 공간입니다. 서로의 부름에 성실하게 응답함으로써 노들의 우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노들을 알고 난 후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나 또한 '우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게 노들은 배우고 싶다는 목소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나도 우리가 되고 싶다'는 외침, 그 모든 부름에 대한 응답의 모임입니다.

그런 노들과의 만남(지금도 진행중인)은 제 삶의 소중한 계기입니다. 아픔에 응답하며 살고자 결심했던 제게 노들이 주는 단단한 사랑의 온기와 만남은 또 다른 제 자신을 잉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신입교사로서 아직은 노들의 구성원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부끄럽지만, 노들의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처음 제가 노들야학의 부름에 응답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까닭은, 우리 장애인들이 여전히 자유롭게 사회 속에서 만남을 이루며 자유로운 삶을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존의 일이 우선인 장애인에게 자유로운 만남이란 사치였습니다. 여전히 사회로부터 배제된 시설 장애인들이 적지 않으며,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협받고,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너와의 자유로운 만남 따위에 대해 떠드는 일은 세상물정 모르는 일이었고, 그렇게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형성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 대신에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응답하던 노들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다, 부채의식을 조금 덜어내고자 하는 마음에 노들야학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처음 저는 장애인과 노들의 부름에 응답하겠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의 교사연수를 거쳐 신입교사로 활동하게 된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부르는 자는 노들이 아닌 저였고, 제 부름에 응답해주셨던 분들은 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노들에 대한 부채감은 늘어만 갔습니다.

즈음에 저는 매주 목요일 검정고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은 일과 공부에 치이며 조금은 지쳐갈 때라, 솔직히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들은 언제나 그런 나약한 저

를 반성하도록 하더군요. 오히려 노들은 제 순수함이 드러날 수 있는 제 일상 속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함에 정화되고, 동료 교사들의 열정에 반성하며,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자유함이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감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형성하고, 그렇게 스스로 형성한 자기 자신에 따를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란 오직 만남의 온전함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살려본 것처럼, 자기를 형성하는 일은 결국 만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우리의 자유가 자유로운 만남 위에서만 존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만남이 가로막힌 정도만큼 나와 너는 함께 부자유한 것입니다.

만남은 너와 내가 서로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남이 둘의 일인 한, 너가 만날 수 없는 상태일 때 나는 너와 만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너와의 만남으로 나 자신일 수 있으니, 너의 어려움은 곧 나의 부자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유로운 만남을 이룰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비장애인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함석헌의 말처럼 우리는 막막한 우주에 단 한사람으로 외롭게 살아가면서도 모든 너들과의 관련 없이 있을 수 없는 나입니다. 자기 자신이란 오직 타인의 자리에서 자기를 되돌아볼 때라야 찾아질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만남이 곧 삶의 본질임을 그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노들의 모든 분들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형성될 제 자신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 또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들의 선배님들처럼 서로의 부름에 응답하며 '우리'가 되어가다 보면, 언젠가 전태일과 같이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응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도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노들은 제 바람에 응답해줄 것입니다.

[노들아 안녕]

업무 6개월차, 노들에서 고군분투 중



≡≡≡ 최혜영

가을바람이 부는 장애등급제 완전폐지·장애인권리쟁취 청와대 앞 농성장 야간 지킴이를 하면서 글을 적어봅니다.

'권익옹호 활동가 최혜영' 저에겐 아직 익숙하지 않고 길을 찾아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업무 6개월 차, 느리고 반복되는 기존의 일상과 다르게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들에서 고군분투중입니다.

노들의 사람이 좋습니다. 투쟁과 조직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장애인의 속도는 느리다고 합니다. 결코 노들의 삶은 느리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삶을 변화시킨 그들과 함께 앞, 뒤, 옆 동료들과 나를 찾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도 투쟁중입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 루 거스너

안녕하세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옹호팀에서 권익옹호를 담당하고 있는 최혜영입니다.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7년간 근무를 한 뒤 돌연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1년간의 공백을 가지고 노들센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노들에 들어오게 된 이유에 특별하거나 멋진 이유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업무에 나를 돌이켜 보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노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홈페이지에 있는 활동사진을 보며 우와~하며 현혹된 것도 사실입니다. 호호

[노들아 안녕]

어머니가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 박미주

안녕하세요! 노들센터 활동지원팀 신입 활동가 박미주입니다.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처음 노들에 들어오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7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노들에 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점차 잃어 가셨고 시각장애 1급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이유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라식수술의 부작용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야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어린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저의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가시던 어머니는 그조차도 힘들어 하셨고 이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원을 가는 길에 문득 호기심이 생겨났고 눈을 감고 길을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인도에 서있던 석고 블라드에 정강이를 부딪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평평 울었습니다. 다친 정강이가 아팠던 것인지,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울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날 이후, 함께 목욕탕을 가자고 어머니를 조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혼자 외출하고 돌아오 시면 멍들어 있던 어머니의 다리와 손바닥의 상처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무관심하게 지나쳐오던 블라드가 비장애인에게는 안전장치로 작용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 뒤로는 거리가 무법천지로 보였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도 거대한 바위처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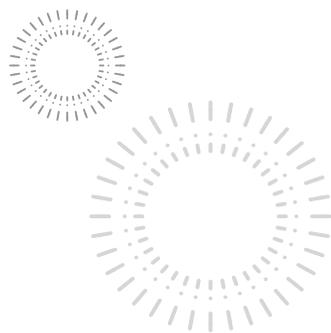
가왔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어머니가 거리로 다시 나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장애인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운동에 관심이 생겼고 지금 이렇게 노들을 만나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420, 신길역 지하철 타기 투쟁 등 크고 작은 투쟁에 참여 하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함께 노래를 하며 서로를 격려할 때는 신이 나기도 했고 참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머릿속이 한창 복잡하던 철나에 전국장애인운동 활동가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첫 날은 어색하기도 했고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활동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박 3일 동안 함께 낮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육을 듣고, 저녁이면 맥주 한 잔으로 하루의 수고를 덜면서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동지들이 전국에 이렇게도 많다는 생각에 든든하기도 했고, 낯설기만 했던 투쟁현장에서 반갑게 인사 나눌 얼굴이 생겼다는 자체만으로도 힘이 나고 기뻐했습니다. 전국장애인운동 활동가대회는 신입 활동가인 저에게 장애인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투쟁현장에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10년의 기다림

김성진

시설 생활 26년 만에 극적으로 자립해서 살아온 지 11년...
딱히 직업은 없으나 운동선수(보치아), 배우 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설은 감옥이었다.

아침 6시에 밥을 먹고 12시에 점심밥을 먹고 저녁 6시에는 저녁을 먹고 9시에는 잠을 자야 했다. 끼니를 거르면 개인적으로 밥을 못 먹는다. 누가 그랬던가 시설에 있으면 편하다고.....

시설은 결코 편하지 않는 곳이다.

요즘 시대에는 모르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시설에서 아이들이 죽어 나가는 것은 일수였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죽더라도 그 안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죽으면 아무도 몰라준다.

무슨 말이나 하면 지금부터가 무서운 시설 얘기를 할

것이기에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공감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믿기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뭐 나는 내가 있었던 시설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겠고 믿기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이다.

난 2살 때 시설로 들어가서 30살에 자립을 했다.

실제로 난 2살인데 시설에 들어가는 나이는 4살부터이다.

난 사실 2살 적다.

나는 6살까지는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해

야 했다.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고 그 누구도 함부로 거역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직원 말이라면 잘 들었다. 7살이 될 무렵 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곳 말고 밖에서도 똑같이 하는지 내 머릿속에 의문이 생겼다.

학교에 들어가서 외부 아이들을 만나고, 수업을 같이 하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생기자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설 아이들이 직원들 말에 대꾸를 하고 자기주장도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직원에게 자기주장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애의 따귀를 때리는 것이었다.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었나 보다.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에 시설 아이들은 그저 직원 말에 복종해야 했다. 물론 직원도 사람인데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죽도록 아이들을 때리는 건 비상식적이다.

시설은 각방에 아이들이 9~10명이 있고, 그중에 1명이나 2명은 좀 똑똑한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그 방에 우두머리가 된다. 우두머리가 돼서 좋은 것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머지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밖으로 나가면 그 우두머리와 그 아이가 직원에게 맞아야 했었다.

나도 역시 우두머리가 돼서 아이들을 돌보았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게 되면 나 역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느새 나도 역시 직원들이랑 똑같이 난폭해진다. 그래도 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직원에게 한마디 건넸다.

“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난 그날 이후로 미운털 박혀서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다. 또 그 말에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어디를 가

든 욕이란 욕을 다 듣고 지냈다.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17살이 되자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몸에 강직이 오고 강직이 오니 다리가 아파 오기 시작했다. 점점 다리가 오그라들고 바닥에 앉지를 못하고 직원에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결국에는 너무 아프니까 원장에게로 가서 병원에 가자고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자 집으로 왔다.

계속 식은땀이 흐르고 날이 가면 갈수록 통증은 심하고 그래서 어느 날 방을 옮기게 된 날이 있었다. 그 당시에 한 직원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난 원장한테 가서 그 방으로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계속 몸이 아프고 그러자 그 직원이 병원을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병명을 알리고 수술도 여러 번하고 여러 약도 먹여보고 그래도 안 나아서 마지막으로 병원을 한 군데 더 가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시설에 가기로 했다. 그 병원은 뇌성마비로 유명한 병원이었다.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병명이 나왔다. 스트레스성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직원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편하게 놔두라고 해서 그날 이후로 직원이 나를 신경을 안 쓰게 했고 물론 강직은 안 낫지만 약을 먹으면서 지냈다.

그 직원에게 자식들이 있었는데 아들 1명에 딸 1명이었다.

아들이 어느덧 군대 가야 할 나이가 되자 직원이 아들을 군대 안 보내려고 시설에서 나갔다.

직원이 나와 나보다 8살이 많은 형에게 같이 나가자고 했다.

같이 가면 각자 방을 주고 외출도 마음대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때 당시 20살이었다.



난 혼자 사는 것이 꿈이었고 아무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직원 말에 혹하는 마음에 같이 시설에서 그 직원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일주일엔 집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았다. 답답하지 않은 날이 지나자 외출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직원에게 외출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너를 어떻게 데리고 나가고 누가 들어서 휠체어에 태워서 앉혀주니!” 난 순간 당황했지만 한편으로 이해는 했다.

그렇지만 서운했다.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들어주면 되지 싶기도 했다.

그래도 시설에서 데리고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며칠이 지나 직원은 아들 군대면제 서류를 넣고 아들은 면제가 됐다.

직원이 돈이 떨어지고 일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다. 갑자기 나와 시설에서 같이 나온 형을 불러서 주간보호센터를 하자고 했다. 난 우리집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려고 집도 개조하고 논밭도 가꾸기 시작해서 한 달이 되자 주간보호센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맡겨놓고 안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아이들이 어느덧 10명이 되자 또 집을 개조를 하면서 넓혀갔다.

그러자 아이들이 늘면서 작은 시설이 되었다.

아이들이 늘자 당연히 자유도 없어졌고 또 다시 그 전에 살던 시설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

그 직원은 원장이 되고 아들은 목회자가 되어 교회 일로, 딸은 시설 직원으로, 시설은 점점 커졌다. 처음과 다른 성격으로 변한 직원은 짜증과 화를 나한테 풀고 더 나가서는 아이들이 잘 못하게 되면 나한테 화살이 날아와 내 마음은 상처로 물들게 되었다.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건 거기에 찾아오던 나를 좋아하는 봉사자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많은 일들과 많은 사고가 있었다. 집을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서 불이 나지 않나, 아이들이 화가 난다고 나의 한쪽 눈을 잃게 했고, 30살이 되도록 많은 일이 있었다.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이제 나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자립한 계기는 시설 원장이 점점 잔소리가 심해져서 참다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난 그날 이후로 미운털 박혀서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다. 또 그 말에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어디를 가든 욕이란 욕을 다 듣고 지냈다.

시설에서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활동보조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다.

그 뉴스를 보고 바로 실행을 했다. 봉사자 누나, 형한테 부탁했는데 다 똑같은 말이었다.

“네가 혼자 어떻게 살 거냐”고. 그리고 “너의 마음도 알지만 그래도 참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거절을 했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고 한 누나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 누나를 즐겼다.

내가 하도 졸라대서 끝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그 누나가 도와주기로 한 다음에 나는 차근 차근 내 집과, 같이 나온 형의 집을 다른 누나에게 붙여 달라고 했다.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사서 시설에서 나오게 해준 아는 목사님의 교회로 붙였다.

마침내 시설에서 탈출하는 날이 되었다.

비가 억수로 내렸다. 원장과 딸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갔다. 누나가 차를 끌고 와서 나를 차에 태우고 다른 누나를 만나서 그 차에 같이 타고 누나가 아는 교회로 갔다.

나와 같이 나온 형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로 교회까지 갔을 거다. 시설에서 나온 지가 10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무튼 교회로 갔다. 방이 3~4개가 있었는데 한 방이 비어있어서 그 방을 당분간 쓰기로 했다.

교회에 있으면서 확보시간과 전동휠체어를 신청했다. 물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나가 다 알아보고 신청을 해주었다. 나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운 누나다.

교회가 작아서 방도 작았다. 화장실도 밖에 있었고 불편하지만 좋았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신다고 해서 또 다시 누나가 원룸을 알아보고 구해줬다. 그래서 원룸에서 살다가 공부가 하고 싶어서 야학을 알아보고 서울에 있는 작은 야간학교로 갔다. 하지만 그 야학은

나에게 수준이 맞지 않아 야학 선생님에게 의논을 한 다음에 노들야학에 알아보고 들어가게 되었다.

노들야학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또 박경석 교장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극단판이 생겨 6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다. 어떻게든 서울에 올라오려고 도움주신 것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서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하게 되었다. 시설에 있는 형이 나오고 싶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큰 거로 얻어 그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시설에서 나온 형이 갑자기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노들에 있는 체험실에서 지내게 되었다.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돈을 모았다가, 또 다른 아는 형이 도와 달라고 해서 송파구에 집을 얻어 같이 살게 되었다. 그 형이 임대 아파트가 돼서 나갔고 혼자 월세 40만원을 내러니 감당하기가 어려워 임대아파트를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서 이사했다.

지금 가끔씩 힘이 들 땐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

처음 마음가짐으로 항상 살아야 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자립이란 말은 무겁지만 그만큼 무거운 길을 가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지금의 나처럼.....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젊은 처녀가 참 착하네~” 잉?!?

활동지원 8개월 차 이야기



송은영

노들 야학에서 인기스타 선생이 되길 바라는 모두의 비타민!
예비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8개월 차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노들야학 국어교사를 하고 있는 송은영입니다! 야학 교사인 진수쌤의 부탁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활동지원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작년에 잠깐 힘든 고비(?)가 생겨서 학교를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휴학을 결심하고 어떤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작년 8월부터 봉사를 하면서 친해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인 한번 해보지 않을까? 네가 해 줬으면 하는 분이 계시” 라고 권유를 해주셨고, 전공도 사회복지고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하게 되었습니다.

Q. 활동지원사를 하며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가 있나요?!

A.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젊은 처녀가 참 착하네~”, “어린 친구가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착하니깐 이런 일 하나보네~ 좋은 일 해서 천국 가겠어~” 등등 착하다, 좋은 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지금도 가끔 들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착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저는 적당한 페이를 받고 그만큼의 노동력을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것뿐인데 왜 사람들은 저에게 착하다, 좋은 일 한다 하시는지.(ㅎㅎ;;)

Q. 활동지원사를 하며 드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나요?

A. 일을 하며 사람들 시선과 장애인식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것 같아 가끔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제가 노력을 하다보면 한 명이 두 명되고 두 명이 세 명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요?! (ㅎㅎ)

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힘듦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한지 8개월 차에 접어든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덜 힘들 수 있는지 터득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울려 잘 살 수 있도록 정당한 대가를 받고 옆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대로 이용자를 조종하려 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또 이용자 편에서 세상을 바라봐주고 같이 바뀌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좋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 활동지원사를 하며 관심이 생긴 것이 있나요?

A. 일 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일을 시작 하고 나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눈에 들어와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조사 중이에요! 저는 주로 카페를 조사하고 있는데 예쁜 카페는 넘쳐나지만 경사로나 편의시설 등이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카페는 별로 없기에 조사하면서 많이 안타까워요ㅠㅠ..

Q. 활동지원사를 하면서 힘들거나 한 적은 없나요?

A.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많이 있었고, 가끔은 감정노동을 한다는 생각도 들어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내

[교단일기]

자신의 한계를 의심만 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박누리

처음 생긴 검정고시반을 한 학기 동안 맡았다.
지금은 수학 4반에서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다.

2018년 1학기 검정고시만을 위한 검정고시반이 새롭게 등장했다. 야학의 수업은 대부분 검정고시 위주의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 안의 수업내용은 완전히 검정고시만을 향하고 있진 않다.

검정고시의 내용을 공부하는 반도 있고 검정고시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는 반도 있는 등 여러 내용의 공부를 동시에 하고 있다. 하여 검정고시 공부에 목마른 학생들을 위해 검정고시반이 새롭게 만들어 졌다.

검정고시반은 목요일 3,4교시 특활시간에 편성되었다. 여기에는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과 당장 이번 시험은 아니지만 실력을 쌓아 언젠가는 검정고시패스를 꾸꾸는 학생들이 수업에 함께 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싶은 사람, 중학교 졸업장을 따고 싶은 사람,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한 시간,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수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각자 공부해야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 함께 공부하려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 두 분이 수업보조를 신청해주셔서, 검정고시 반에 배정 되었다. 그래서 검정고시반 담당교사는 초졸 검정고시를 수업보조 한 분은 중졸 검정고시를 또 한 분은 고졸 검정고시를 각각 담당하게 되어 안정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검정고시 반은 2월에 처음 수업을 했고 4월에 2018년 1차 검정고시가 있었다.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시험 준비를 해야 했고, 시간은 짧았지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다. 초졸 검정고시반은 수학을 위주로 공부하였고 가끔씩 짧게 과학 공부를 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열정이 남다른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일하는 곳에서, 또는 야학에서 낮 시간에 열심히 공부 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2018년 4월 초졸 검정고

시를 봤다. 총 다섯 명의 학생이 검정고시를 봤는데, 네 명의 학생들은 선린중학교에서 고졸검정고시를 봤고 나머지 한 명은 경운학교에서 시험을 봤다.

나는 초졸 검정고시를 보는 선린중학교에 학생들을 응원 하러 갔다. 학생들이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것을 배웅하고, 학생들이 시험 보는 동안은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기다렸다. 4월이었음에도 학교는 정말 엄청나게 추웠다. 1,2교시가 끝나고 활동지원을 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보러 잠깐 들어갔을 때 1교시에는 국어, 사회를 한 번에 봐야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선생인 내가 처음 들었으니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리가 없었다. 모두 함께 멘붕이 되었지만 2교시 파이팅을 외치며 학생들은 다시 시험에 응했다. 그렇게 무사히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올 때 짬 조희연 교육감이 검정고시 수험생들을 응원하러 선린중학교에 왔다. 조희연 교육감과 학생들은 기념사진을 찍고 시험장에서 나왔다. 시험장에서 나온 시간은 점심시간이었다. 열심히 시험을 본 학생들과 학생들의 시험이 끝날 때쯤

맞춰 오신 천성호 선생님과 함께 시험장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다.

길지 않은 시간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 했음에도 정숙, 상지 두 명이 초졸 검정고시에 합

격 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이들은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을 위해 중졸 검정고시팀에서 중학과정을 공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역시나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8월 8일 2차 검정고시 시험이 있었다. 8월은 야학이 방학을 하는 기간이어서 많은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는 않았고 3명의 학생이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했다. 이 시험에서 박정숙, 추경진 학생은 중졸 검정고시 합격, 지난 1차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한 박상준 학생이 초졸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응시한 3명 모두 합격을 했다.

한 학기 정도의 짧은 시간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다. 앞으로도 이 수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의심만 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또한 꼭 합격이 아니더라도 도전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을 확인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시험보기 전 교사장에서



시험 보기전 선물증정



시험종료후 조희연교육감과 함께



검정고시 특수교사장

센터판의 자립생활주택 운영 도전기

서기현

어머니의 태몽에서 백사로 분해 치맛속(?)으로 들어가 태어나서 그런지 입만 살아있고 팔다리는 못 씹. 역시나 뱀처럼 음흉하고 똑똑하여 이간질을 잘함. 그래서 쓸로 ㅍㅍ 천운으로 센터판 소장으로 들어와 아직까지는 버티고는 있지만 글썩...

우리 센터판도 성북구에 터를 잡은 지 어언 6,7년 이 다 되어 간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센터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열심히 센터 활동의 기반을 닦았고, 활동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2개의 사업 외에 큰 규모의 사업을 꿈으라면 공동모금회의 '나도 혼자 산다'라는 3년짜리 탈시설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리의 모 법인인 사단법인 노란들판(시작 당시에는 사단법인 노들)과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우리 센터판이 함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진행했다. 사업 내용은 시설 장애인에게 시설에서 퇴소하지 않고 약 2개월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단기 체험홈 프로그램이었다. 약 3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그중 절반 이상인 16명이 탈시설을 했고 나머지 분들도 열심히 탈시설을 준비 중

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늘 아쉬웠던 것이 있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탈시설을 도와주면 항상 다른 지역의 센터에 가서 정착(?)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센터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센터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갔던 것이다. 우리로서는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소식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올라오던 공고는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고, 우리는 애가 탈 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업을 잘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계속 그분들의 탈시설 소식은 들려왔고, 그럴 때마다 당연히 축하는 했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챙긴다는 얘기가 떠오를 만큼 허탈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결도 안 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 1기 이용자 2명이 3개월의 체험을 무사히 마쳤고 얼마 후에는 2기 이용자 2명이 또 다른 3개월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던 중 드디어 자립생활주택 운영자 모집공고가 작년에 올라왔고 당연히 자신만만하게 신청을 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면접 심사까지 보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다. 당시에는 이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센터 위주로 합격한 결과여서, 운영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후의 재도전도 쉽지 않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 2,3차례 더 도전을 했지만 매번 미역국을 먹었다.

답답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꼭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던 센터들만 기회를 갖는다면 신규 신청 센터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원망도 들었다.

그 얼마 후에 또 다시 공고를 확인했다. 그것도 몇 가지 유형을 동시에 모집하는 것이었다. 우선은 도움이 필요했다. 우리가 속해있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도움을 청했고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최용기 소장님께서 도와달라고 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가지 유형의 자립생활주택에 동시에 신청을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다.

자립생활주택 다형(전환서비스센터를 거쳐 탈시설한 발달장애인 대상)과 자립생활주택 체험형(전환서비스센터를 거치기 전의 시설장애인 대상)이 그 유형이었고 이 2개 모두에 신청을 했다.

결과는 자립생활주택 체험형의 운영 사업자에 선정되었다. 심사 과정을 비공식(?)적인 루트로 전해들은 바로는 그마저도 위태로웠다지만, 어쨌든 다행이었다.

올해 초에 운영사업자를 모집한 총 10개의 자립생활주택 중 우리 센터판과 마포가온센터가 운영을 맞게 된 2개의 자립생활주택 체험형은 서울시도 처음 모집하는 유형이다.

기존의 자립생활주택은 이미 탈시설한 장애인이 대상이었다면 체험형은 시설에서 퇴소하지 않고 임시로 몇 달간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머물며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것이다. 체험이 끝나고 실제 탈시설을 준비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센터도 (그리고 가온센터도)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담당 활동가가 많은 시간을 내어 활동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결도 안 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 1기 이용자 2명이 3개월의 체험을 무사히 마쳤고 얼마 후에는 2기 이용자 2명이 또 다른 3개월을 체험할 것이다.

처음의 고민 - 우리 센터와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다른 센터로 가는 것 - 에 대한 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자립생활주택을 잘 활용하여 다른 센터와 함께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더 나아가서 자립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그까짓 고민, 별 대수인가?

[장애인권교육 이야기]

장애인은 ‘훌륭한’ 장애인권강사가 될 수 없나요

허신행

노들장애인아학 교사, 노들장애인권교육팀 강사

올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²⁾이 법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각 회사에서 의무로 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의무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에서는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5월부터 급히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우후죽순으로 장애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한다는 내·외부적인 비판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용공단의 이런 움직임은 일견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세 공론화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비마이너에서는 "중증장애인은 못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어 사실상 중증

장애인을 배제하는 고용공단의 강사선정 기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기업 입장에서 비용 지급하고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강사 기준이 아니라 피강의자(강의를 듣는 사람)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고용공단의 문제적 시각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음성언어가 전혀 안 되는 중증장애인도 대기업 임직원들 앞에서 장애인권에 대해서 멋진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뇌병변장애가 심

²⁾ 인권교육을 하는 분들은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차별 문제를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인권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들장애인권교육팀 분들에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해 발음이 거의 안 들리거나 지속적으로 몸이 떨리는 사람도 강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무학 장애인 당사자의 강의는 어떠신지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바람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농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미리 규정지어놓고, 비장애인 중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격 없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농간 말입니다. 오랜 기간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인권교육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자신 있게 우리는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고,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의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강사들처럼 화려하고 어려운 말을 쏟아내면 그분은 훌륭한 강사일까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강의를 듣고 나면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게 없지 않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두어시간 지나면 내용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노들아학은 많은 경우에 장애인 강사와 비장애인 강사가 짝을 맺어 교육에 나가는데 좋은 강의 평가는 압도적으로 장애인 강사에게 향합니다. 힘겹게 몇 마디 건네지만 그 말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가슴속에 울림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말로 하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만남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 짝꿍은 언어장애가 있어서 말뿐이나 손으로 글씨를 써서 소통하시는데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두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면 그분들은 더이상 ‘장애인과의 의

사소통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은 안하시게 됩니다. 적어도 활동지원사와 동료 교사들을 보조자로 부르며 그분들과만 소통하려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60년대까지 만해도 미국에선 흑인들이 학교도 따로 다녔고, 버스 좌석도 따로 앉았으며, 화장실도 별도로 썼습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쉼튼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2018년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현실이지요. 장애인은 통합학급이 아닌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고, 저상버스를 찾아다니거나 콜택시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화장실을 한 번 가려해도 장애인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차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상한 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회에 정면으로 저항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비싼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데 말도 잘하고 배운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고용공단 모 직원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에게 그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강의라는 것을 소위 배운 사람들이 독점하면 안 된다고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야학 학생분들을 비롯한 노들의 구성원들이 관공서에서, 기업체에서, 학교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등한 밥상’ 티켓판매왕들이 전하는 감사인사

노들야학의 밥상을 함께 차려주신 분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ㅋㅋ

이름은 김동림이고요~ 노들야학 한소리반이랍니다. 시설에 살다가 탈시설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아직도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지역사회(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동료상담을 하고 있으며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탈시설의 불씨가...!



다음 아니라 지난번에 노들야학 일일주점 티켓판매 왕이라고 하네요. 별로 팔지도 못했는데 학생들 중에는-.....(좀 했나봐요) 탈시설하여 각 센터에 남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다른 학생들보다 티켓을 많이 팔 수가 있었어요~ 일부는 교회에 장로님과 신도님들에게 팔았어요..... 내가 싫어하는 뭘 판다는 것을 말할 못하는데 야학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티켓을 판다는데 처음에는 20장을 센터마다 다니면서 팔아보니 차츰 말문이 열려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령이 생겨 5~60장을 팔 수가 있죠? 일일주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은 후원이지만 후원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06.09 노들장애인야학 후원마당[평등한밥상] 고마운 분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 노들야학 명희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

딩,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뒤, 노들야학이 동지를 튼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정립전자에서 탁구장 2개의 교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우리의 터전을 지켰지만 쫓겨났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추운겨울 농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교육청으로부터의 일부 지원금을 받아 지금의 건물로 입주하였습니다. 여전히 액수를 손에 꼽아 보아도 입을 조그맣게 헤아려 보아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월세와 관리비에 허덕입니다. 그렇지만 아차산 정립 전자에서 대학로 공간에 입주하기까지 순탄하지 않았던 그 길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들야학의 밥상도 그러합니다. 아직은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급식에 작은 금액이나마 학생분들에게는 식대를 받았기도 하였지만, 그 작은 액수만큼은 비례하지 않았던 각자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우리의 밥상을 모두의 고민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매년같이 노들야학의 통장은 급식비와 운영비로 뺑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의 밥을 언제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밥이란, 대학로의 많고 많은 계단 턱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일, 바쁜 점심*저녁 시간에 가면 주인의 눈치를 받고 꾸역꾸역 밥 한 손갈을 떠야하는 일, 혹은 밥의 비용을 계산하기에는 메뉴판 하나를 읽기에는 글을 몰라서 수를 몰라서 아예 가게를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일, 그렇게 우리의 밥상을 차리는 그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그 길을 부단히 같이 가주시려 해서, 우리와 함께 하루의 밥상을 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신 마음과 지원으로 오늘도 노들야학은 살아갑니다.



김도현



즐거운 식사 하세요~♥

제가 인간관계가 빈약하다보니 그동안 노들야학 후원주점을 할 때마다 티켓을 50장도 채 못 팔았었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신 덕분에 무려 200장(1만원권 기준)을 넘게 판매를 할 수 있었네요. 그리하여 이렇게 판매왕에까지 등극! ㅎㅎ 앞으로도 노들야학의 무상급식이 짝옥~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人



김형숙



즐거운 식사 하세요~♥

우리는 평등한 밥상에서 평등한 일상을 꿈꾼다!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더 알기에 노들장애인야학은 2014년부터 야학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매년 후원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중증장애인에게는 특별한 일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노들야학은 평등한 일상으로 바꾸는 투쟁을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한결같은 후원과 관심으로 후원마당을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후원으로 학생들과 밥 잘 먹고 열심히 공부(투쟁)?! 도 하겠습니다.

노들야학에 오니까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고,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학령기에 배우지 못한 공부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사랑도 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울고, 웃고, 보고픈 사람이 안보이면 궁금하고, '나는 무슨 일을 할까' 고민도 하고, 또 밥 먹고, 지하철도 타고 저상버스도 타고, 장췌도 타고, 기차도 타고요. 신길역 리프트 투쟁도 하고, 청와대 농성장도 지키고.. 시설이나 집에만 있을 때는 할 일도 없었는데 밖에 나와 살아보니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도 있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내기 위한, 공부도 하고 투쟁도 하고 연대도 열심히 하는 활동들을 펼칠 것입니다. 장애등급제가 가짜가 아닌 진짜 제대로 폐지되고, 부양 의무자기준이 완전폐지 되고, 장애인수용시설이 폐지되어 평등한 일상으로 밥 걱정이 삶의 걱정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려고 합니다. 회원여러분 함께 평등한 밥상 평등한 일상을 위한 투쟁에 함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투쟁!!

장애인문화예술판 소식

<엄마라는 이름으로>와 <햄릿> 준비 중

주은아

'장애인문화예술판'에 박혀 있는 문화예술활동가입니다.

2018.10.11-17
성북마을극장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방향)

10.11(목)-12(금) 평일 저녁 8시	티켓 10,000원	문의 02-745-4208 420pan@naver.com www.artpan.net
10.13(토) 10.14(일) 저녁 7시 오후 4시	국민은행 4884031-01-202141 (장애인문화예술권)	
10.15(월)-17(수) 평일 저녁 8시	인터파크 ARS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엄마라는 이름으로

엄마의 입마 앞에 서 있는 엄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나의 엄마라는 이름의 그녀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서있는 그녀 그녀이자 나의 엄마 엄마이자 누군가의 딸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그녀에게 오늘은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주최 장애인문화예술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장애인문화예술판(이하 '문예판') 최초 공개 오디션 ~!!

문예판이 어언 11년 역사를 갖다 보니 어느덧 등록 단원만 19명.....뜨악!!!

과거에 몇 몇 단원들은 웬만하면 공연에 모두 투입 되어 무대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정된 특단의 조치, 공개 오디션~!!

문예판은 10월과 12월에 각각 <엄마라는 이름으로>와 <햄릿>이란 공연을 올립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작품은 이미 2012년에 정기 공연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 갑자기 공연 사업(서울문화재단) 선정이 되어 지난 작품과는 달리 '신체극'으로 보여드립니다. 물론 오디션도 그 '신체'를 이용한 움직임 위주로 하였지요. 11명의 지원자 중 무려 약 50%가 탈락, 단 6명의 배우가 합격!! 음..게다가...모두 여성만...흠.....뭔가.....ㅋ;; 암튼, 빨리 넘어가야겠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 일시: 10월 11일(목) ~ 10월 17일(수)
총 7회 공연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저녁 7시
일요일 오후 4시

햄릿

- 일시: 11월 마지막주 ~ 12월 첫 주
(정확한 일시는 추후 공지)
- 장소: 모두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근처
「성북마을극장」

그 다음은 햄릿!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는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 맞아요. 드디어 문예판이 고전 작품에 도전을 했는데요, 공개 오디션 과정이 참으로 고전이었습니다. 무려 1차와 2차로 나누어 오디션을 치렀답니다. 4회 차에 걸쳐 오디션 워크샵을 진행한 후, 과제를 발표하고 미션(?)을 수행하며 심사숙고 끝에 '일단' 5명을 확정하였지요. 이제 10월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강행할 것입니다.

공연 일정을 알려드릴 테니, 좋은 공연을 놓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시고, 많이 보러 오세요~

이 공연이 끝이 아닙니다. 10월에는 사물놀이 공연 <꿈을 찾는 소리여행>, 11월엔 단편영화 <앨리스는 통역 중> 상영회, 12월엔 움직임 워크샵 발표회 등 줄줄이 보여드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018년 가을과 겨울은 장애인문화예술판과 함께 해요^^

‘육하는 여자’ 제작 뒷이야기...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 상영작

박세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북쪽북쪽 맨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진지하고 고리타분한 거보다 재미지고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는.....남들과는 달리 특별하고픈 활동가입니다!!ㅋㅋ

2018. 8. 30.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센터 자체적으로 ‘육하는 여자 시즌2’를 기획하게 되었다. 활동지원팀 유코디랑...ㅋ 육하는 여자(일명 ‘육녀’)의 원안은 센터판 매거진 마지막 고정 코너이다. 집필자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세O...ㅋㅋㅋ 한...5~6년 동안 ‘육하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성질이 드X워서 맨날 육하고 다니지는 않는다. 절~대.....

처음에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내가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분노표출(?)을 하고 싶었다.ㅋㅋㅋ(나는 걸어 다니긴 하고 오른쪽 편마비인 자칭 도보 장애인...ㅋ) 육할 만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센터판 매거진(www.420pan.or.kr 웹진 페이지)을 보면 알 수 있을.....(갑자기 육녀의 어투가 나올...뵘.....) 누구나 일상에서 접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구조적 차별 등을 알아듣기 쉽게....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글을 읽어보면 내가 쓸모없이 육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만 내가 육하는 건 합법적인 육~!!!!!! 정당한 육~!!!!이다.(소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난 그렇게 생각함.)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은 육을 못하거나 육을 하고 성질을 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장애인은 착해야한다??이건 위험한 생각인 듯하다.

장애인?? 육 한다. 그것도 아주 잘한다.(나..나.....도....) 성질도 낸다. 왜??? 사람이니까...사람이라면 당연히 짜증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지X을 할 것이다. 물론 아무 때나 지X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여태까지 썼던 글을 토대로 ‘판’만의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다들 내가 쓴 원고가 글을 보



때 상황이 떠올라 그땐 하지 못했던 울분이 내면에서 표출되었다...ㅋㅋ

마지막 이야기 중에서 상담원과 통화를 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도 당연히 실제상황.....역시 상담원 역할을 했던 활동가가 연기 하는 것을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억울한 감정이 생각나서 진짜 한 대 쥐어박고 욕을 퍼

는 것만으로도 음성지원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실제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청각적으로...간접적이지만 온몸으로...머리로...느끼게 하고 싶었다. 영상이 글보다는 누구나 접하기 쉬우니까...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싹~다 실제상황~!!!!!!!!!!!!100% 리얼이다. 내가 겪은.....이...슈레기 같은 상황들.....X

원래 착하고...순..진하고 욕이란 것을 모르는 나였는데.....과거에는 그..랬는데....그랬었는데.....ㅍㅍ

올해 제작한 '욱하는 여자 시즌2'의 이야기 중에 인테리어 회사 이야기가 있다. 전화업무가 주어졌지만 사장이 내 언어장애 때문에 못 알아듣겠다는 업체가 많다고 내가 전화를 받기 전에 먼저 받으라고 했다고 일주일 먼저 들어 온 동갑내기(뭐...나보다는 일찍 들어갔으니까 선배라 해야겠지...)가 나에게 말해주는 거다. 그 외에도 느린 언어를 끝까지 듣지 않는 등 그런 일이 몇 가지 있었다. 나는 결국 그 회사를 때려 치고 그만뒀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그 회사가 장애인고용장려금 때문에 나를 채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분이 참 개...같.....뭐...ㅋ

이 내용을 촬영할 때 상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하는 거다...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붓고 싶었다...듣고 있던 텀블러를 던지면서.....ㅋㅋㅋ 물론 그러진 않았다...내가 그만큼 미X지는 않았으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 장면에 나온 욕하는 장면이 그 당시 내 전화를 받았던 상담원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상담원이라며~!!!친절하게 상담해 주다며~!!! 언어장애 있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도 못하냐???)\$%#&\$@)이었다. 물론 못 알아듣는 거 이해.....한다.....그래 이해....아니 그래도 그렇지...“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라거나...정~~~~진~짜 못 알아듣겠다면 “메일로 다시 한번 문의 내용 보내주세요.”라든지 언어 장애인 대응 방법 모르냐고~!!!!!!!!!!

아~~~~쓰다보니까 또 욕할 듯.....감정 폭발~!!!!!!!!!!!!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장애인 상대를 안해봐서??? 그러면 이제부터 장애인도 달라지는 수밖에.....같이 퍼부어 주는 거다. 이의제기~!!!!!!!!!!

아주 장애인은 뭐 지X 못할 줄 아니??????? 더불어 좀 살자~!!!!!!!!!! 말로만 지ㄱ이지 말고.....참.....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제 9회 종로 노들보치아대회!!!

임지영

노들 2년차 먹을 거 주면 사람 잘 따르는 버럭 원숭이

〈노들바람〉 원고를 작성할 때쯤 되니 날이 선선해지네요.ㅍㅍ 작년 '종로 노들보치아대회'로 원고를 작성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정말 못 썼는데 이번 글은 어떻게 쓰여 질지 저에 대해 궁금하게 만드네요. ㅎㅎ 이번여름은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았어요. 여름 끝에 '9번째 종로 노들보치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느 공장만큼이나 바쁘게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대회 준비 전부터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지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거의 매일 왔었는데요. 대회의 관심도가 정말 33도의 찜질방 같은 사무실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화 문의가 불덩이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대회포스터부터 만들어졌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바람이 부는 사막에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었어요. 늘 감정 못만 입은 제가 색깔을 맞춰가며 포스터를 만드는데 “색채공부라도 해야 하나?”라는 기분으로 이것저것 갖다 붙여 보기도 하고 보치아 대회 포스터들도 찾아보



고 그렇게 해서 포스터 완성했더니 해변에서 반지 찾은 기분이었어요. ㅎㅎ 센터 사람들과 보치아 대진표, 팀 명판, 참석자 명단, 심판 명찰 등을 만들었고 마트에서 조그마한 카트 두 개에 히말라야 산처럼 쌓여진 간식들도 고르고! 담고! 센터 사람들과 간식 봉투에 간식을 담은 과정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5~6명이 쫄로 둘러 앉아 인원수대로 각자 맡은 간식을 담는데.. 노들센터 공장 풀가동!!! 이런 모습(?)이었어요.



대회 당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핸드폰이 열심히 울리고 있었어요. 도착해서 이것저것 물품도 챙기고 진열하는 가운데 대회 진행을 이끌어 갈 심판 분들이 열심히 보치아 라인도 그리고 계셨고 어떤 팀들은 먼저 오셔서 연습하고 계시고, 연습하시는데 정말 이번 대회도 치열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자! 이제 준비는 다 되었고 '제 9회 종로 노들보치아대회'가 시작되었는데 16개의 팀들이 팀별로 나란히 계시면서 대회 개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회식에는 작년에도 있었던 센터 소장님, 구청장님, 문화부국장님과 여러분이 보치아 시구를 하면서 관심과 응원 속에서 16강을 펼쳤습니다. 이번년도에는 작년과 다르게 '노치아나팀'과 '노란들판팀'의 팀장과 선수 2명, 후보 선수 2명을 코치님과 회원들의 의견을 통해 선정하여 하였는데 아쉽게도 '노치아나팀'은 예선전에서부터 막강한 팀에게 걸려서 탈락하고 '노란들판팀'은 엄청 잘 해줬는데 아쉽게도 4강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ㅠㅠ 그래도!!! 보치아교실 담당으로서 이 정도라도 만족합니다! 모두 즐겁게 하셨으니까요! 저는 이

결과가 발판이 되어 다음 대회 때에는 팀별로 연습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차츰차츰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이라 예상하거든요.(근자감인가?) 무튼 두 팀 모두 즐겁게 경기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짜짜짜짜~) 이번년도에 4위는 참세상강북 자립생활센터의 힐라이프팀, 3위는 오산장애인지원센터의 세상밖으로팀, 2위는 남은자장애인지원센터의 허리케인팀! 1위는... 도봉장애인지원센터의 바람돌이팀이 되었습니다!!! (짜짜짜) 순위에 들어간 팀들 경기에 참여한 팀들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작업 또한 심판진 여러분과 남아 계셨던 활동보조 선생님들 그리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고생한 우리 노들센터! 모두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제 10회 종로 노들보치아대회' 또한 매회 때마다 보내주셨던 관심과 열띤 응원! 기대하고 올해보다 더 좋고 재미있는 대회로 내년에 또! 뵈겠습니다. ^^ㅎ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노년에 접어든 한 쿼어 여성의 삶과 운동, 궁리소 차담회 후기

≡≡≡ 박정숙

노들야학 한소리반 학생, 노란들판 활동지원 교육기관 상근활동가입니다. 파스타를 먹으며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년에 접어든 한 쿼어 여성의 삶과 운동, 그리고 구술생애 작가로서의 글쓰기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과 대답이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일면식도 없었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다. 노들장애학궁리소 차담회 이야기손님으로 오는 거니까 범상치 않을 거라 생각되어,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검색 해보니 동영상이었다.

역시나 대단하고 그는 나에게 기대를 주는 멋진 사람이었다.

희끗한 머리칼 숏 컷트 스타일에 웃음 가득한 얼굴, 첫인상이 강렬하면서도 미소가 부드러웠다. 격이 없이 진행된 차담회, 말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일방적이지 않아서 좋았다. 본인의 어린 시절과 청년 때와 중년과 노년을 부모님과 형제지간, 결혼생활과 자녀, 그리고 연인 이야기까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한 부분은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스펙터클 하고 가슴이 뻥적이 있을까?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다. 그가 거침없이

내놓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 한 페이지에서는 나의 어린 시절이 가감 없이 소환되었고 괜찮다고 다독이며 부끄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치유와 감동에 몽클했었다. 어느 한 페이지에서는 그의 외로움과 애뜻함, 사랑과 용기를 보았고 또 다른 페이지에서 소수자와 장애인 노인들의 삶에 귀 기울여 연대와 운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며 내 맘에 좋아하는 또 한 사람으로 저장해두기로 했다. 1957년 생 최현숙. 한마디로 멋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면서 롤 모델을 만들고 따라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만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서 굳이 그의 이력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차담회에서 만난 그는 나의 노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많은 감정들이 요동쳤던 3시간 동안 이런 좋은 만남을 만들어준 궁리소 차담회에 감사했고 그의 글을 많이 읽고 알아가고 함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감흥이 없어지며 말라가던 나의 감수성이 살아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뛰는 가슴이 또 한 뼘만큼 확장된 행복한 시간이었다.

[동네 한 바퀴]

‘땡땡’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땡

≡≡≡ 땡땡

안녕하세요? 땡땡입니다. 땡땡은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상담과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네 한 바퀴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땡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땡땡 사람들이 최근 몇 차례 노들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보고, 이 참에 땡땡에 자기소개를 해주십사 부탁드렸어요. - 편집자

안녕하세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땡입니다! 땡땡은 2014년 12월 24일에 사무실을 개소하여 2018년 올해 4년차 활동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소수이고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위기에 취약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성인 성소수자와 다르게 청소년 성소수자의 위기는 더 크게 다가 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땡땡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쉽터를 목표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땡땡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나요?

성소수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적체성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혐오표현을 막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취약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청소년은 어떨까요? 이성애자 중심의 교육과 선생님, 친구, 부모님 등에 듣는 성소수자 관련 혐오표현을 통해 청소년기에 확립해가고 있는 성적체성을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나쁘거나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면서 혐오표현을 통

해 상처를 입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자신의 성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이나 아웃팅(자신의 성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을 당했을 때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일 때는 왕따를 당하거나 집단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지요. 이런 경험은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탈학교, 탈가정, 심하게는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정체성고민부터 시작하여 성소수자로서 겪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해 땡땡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땡땡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땡땡의 가장 기본적인 지원은 상담입니다. 땡땡의 상담은 정체성상담, 연애상담, 커밍아웃상담부터 법률지원, 탈학교, 탈가정지원까지 다양한 상담과 지원의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땡땡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땡땡 식당 토토밥>이라는 프로그램은 <토요일 토요일은 밥먹자>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두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땡땡에서 식사를 나누고 식사 후에 보드게임, 영화감상 등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땡땡식당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성소수자가 만나 이 세상에 다양한 성소수자가 있고 혼자자 아니라는 메시지를 부여하여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리이동상담 땡땡포차> 거리의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종로3가 일대에서 매일 첫째 주 토요일 저녁부터 심야시간까지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 간식과 이야기와 필요한 물품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땡땡의 상담과 연계해 땡땡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땡땡이 함께 힘씁니다.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레인보우 내비게이션>은 탈가정 경험이 있거나 현재 탈가정 중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잘 자립 할 수 있도록 자립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키트 나눔>사업은 현재 탈가정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찬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땡땡은 HIV/AIDS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HIV를 포함한 성매개 감염병과 관련한 검진에 동행하기도 하고 콘돔과 젤을 배포하기도 하고 HIV/AIDS와 관련한 자료집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거리캠페인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고 보니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땡땡은 정부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땡땡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땡땡의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4명의 정기후원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땡땡의 활동이 인상 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땡땡 홈페이지[<https://www.ddingdong.kr>]에서 정기후원을 신청해주세요. 일시기부는 [신한은행 100-030-529880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땡]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땡땡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노들책꽂이1]

실격당한 우리를 위한 초상화

≡ 박은영

대학원에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다 백수가 되었을 때 장애여성 친구들을 만나 장애학에 맛을 들인 뇌성마비 장애여성. 장애학 연구를 더 하고 싶어서 다신 안 돌아가겠다고 대학원에 들어와 오늘도 칩칙한 연구실에서 단조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지음 / 2018 / 세계절

김원영 변호사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아래 <변론>)은 개별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집단을 대표하는 기호로만 소비되는 '실격당한 자들'의 복잡다단한 일상을 한 폭의 '초상화'처럼 그려낸다. 저자는 시간을 농축시켜 덧칠하듯 한 존재를 표현하는 초상화처럼, 사람도 긴 시간과 다양한 각도를 통해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273쪽).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단순한 기호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만저만 피곤한 일이 아니다. 드러난 면만 파악하기도 바쁜 세상에서, 고운 붓으로 수십 번 덧칠한 '한 길 사람 속'을 읽는 일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속에 숨어 있다가 예고도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단층들조차 낯설 때가 많다. 내 안에는 아직도 언어화되기를 기다리며 잠영 중인 수많은 결들이 꿈틀대고 있다. 그런데 김원영은 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초상화를 그려보겠다는 듯, 거의 모든 순간 세밀하게 붓끝을 놀린다. 나 하나만

도 다독이며 가기도 벅찬 인생에서 이 무슨 무모한 '허세'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이 '허세 가득한' 분홍색 책의 모든 페이지를 한 땀 한 땀 공들여 읽었다. 그가 그려낸 우리의 초상화와 내 속에서 잠영하던 얼굴들이 만나 새로운 오름들로 융기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축적되어있는 단층들은 먼저 수면 위로 올라온 다른 사람의 단층에 의지하여 모습을 드러낸다. '장애여성'이라는 단어를 마주치고 장애여성들이 세밀하게 묘사해놓은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애여성으로서의 내가 비로소 첫 숨결을 내뿔었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공개적으로 발설해준 사람들 덕분에, 나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낼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김원영의 글 또한 정곡을 찌르며 나의 속 깊은 부분들을 언어화시킨다.

나의 단층과 최초로 만난 <변론>의 언어는 '우아함'이었다. 저자는 '우아한 품격'을 지키려는 장애인들의 전략을 책 전반에 알아야 박아놓았다. 사실 '우아한 장애인'이란 말은 '소리 없는 아우성'만큼이나 역설적인 표현이다. 저자는 우아하게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1.8초 간격으로 휠체어를 민다. 나는 원피스를 차려입고 의사가 금지령을 내릴 수도 있는 샌들을 신고는, 발목 한두 번 휘어지는 것쯤은 아랑곳 않고 '내 나름대로는' 사뿐사뿐 걷는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우아하다고 생각할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든 어디엔가 걸려 균형을 잃을 수 있고, 그 순간 우리의 자세는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아함을 완성하는 순간은 바로 그다음 순간이다.

우리의 품격은 휠체어가 배수로에 걸려 고꾸라질 때 잼싸게 손으로 짚고 올라오며 "방금 각도 좋았음?"이라고 허세를 부릴 때, 보도블록 틈에 걸려 휘청일 때 잼싸게 친구 어깨를 움켜쥐며 "방금 내가 잠 깨워줬지? 졸다 넘어지면 큰일 내!"라고 능청을 떨 때 비로소 완성되

는 것 같다. 우리가 부리는 이러한 허세는 우리의 우아함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사수하는 전략이자, 한순간이라도 '장애인'이라는 뽀뽀한 기호에 갇히지 않기 위해 부리는 묘기이다. 우리는 묘기로 생계를 잇는 프로 곡예사라도 되는 듯, 웬만해서는 그 묘기를 생략하거나 포기할 줄 모른다.

저자는 "스타일의 추구는 자신을 '무엇이 아님'이라는 결여가 아니라 '무엇임'이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124~125쪽)"고 말한다. 내 장애는 사회에서 분리되기에 너무 경증이었고 무시되기에 가시적이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목표는, 나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아남기였다. 나는 '약간의 도움만 제공하면 같이 다니기 그리 나쁘지 않은' 장애인이 되기 위해, 각 활동에 대한 내 참여 수위와 필요 수위를 조절하는 법을 연마했다.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를 부정하'거나 "그럼 너도 다리 잘라"라고 외칠 배짱 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내가 무슨 화려한 말로 포장을 하든, 실질적으로 나의 꿈은 '장애를 가진 것 빼고는 모든 것이 완벽한' 장애인과 '장애 때문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장애인, 양쪽 다 '되지 않는 것' 정도였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편견과 저런 오해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 바빴지만, 부정형이 아닌 계획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주 오랫동안, 언젠가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했다. 희한하게도 이 계획만큼은 어떤 모욕이나 어떤 사고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다. (지금도 이 책은 여전히 '미래에 나올 책'이다.) 김원영 변호사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 국가들이 명시하는 '인간의 존엄'을 자신 인생의 내러티브에 대한 각 개인의 고유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설한다(185~186쪽). 나는 그동안 아직 미출간인 나의 책을 쓰며, 나의 내러티브 즉 나의 인간됨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

‘인간다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물리적인 것과
 정서적·감정적인 것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다움의 기본조건’들은
 물리적인 동시에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다.

각 개인은 개별자로서 집단의 내러티브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 갈 자유가 있다. 더구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개별성이 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독특하고 개별적인 내러티브가 형성될 여지가 아주 많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들의 삶은 몇 개의 고정된 내러티브에 옥여넣어 지곤 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몸들을 획일적인 내러티브에라도 가둔 후에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바야흐로 ‘변론의 시대’다. 20여 년 전부터 “우리도 사람이다”를 외치며 다른 사람과 같은 권리를 하나둘씩 주장해나갔던 이들은, 언젠가부터 주장을 넘어 진술을 시작했다. ‘변태 아님’을 주장하던 이들은 ‘귀여 됨’이 무엇인지 시연해 보이고, ‘병신 아님’을 외치던 이들은 독자적인 ‘장애 정체성’ 담론을 구축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과정에서 기호 속에 묶여버렸던 자신의 일상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개별성과 개별자로서의 자신의 일상을 변론한다.

개별자의 삶을 드러내는 데는 내러티브가 필수적이

다. 정적인 상징이나 기호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개별자의 전인격성을 고사시킬 수밖에 없다. 내가 미래에 쓸 책의 내용은 사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문단과 문단 사이에 방향 전환이 많고, 머뭇거리거나 의심하며, 한 문장은 바로 직전의 문장을 금방 부인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내러티브의 기승전결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비전문가의 개동 문학 이론으로 분석해보자면 이렇다. 소설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는 일관적이면서도 비일관적이다. 캐릭터가 혼란을 겪을수록, 스토리가 전개됨에 따라 캐릭터도 변화를 보일수록 독자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다. 일관성만 보이는 캐릭터는 문학적 성취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독자들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다. 우리 대부분은 흘러가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찌그러져 전혀 계획하지 않은 얼굴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설의 생명은 캐릭터의 일관성이라고 할 때의 그 일관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작가가 캐릭터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일관성 아닐까? 플롯에 따라 자의적으로 캐릭터의 고유한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 캐릭터의 인간적 흔들림과 모순, 고민과 그 과정의 변화를 존중하는 것. 작가가 캐릭터를 존중할 때 독자들도 그 인물에게 몰입할 수 있다. 캐릭터의 일관된 ‘인간성’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유통되었던 빈약한 장애인 내러티브들은 일관적이라고도 인간적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은 개별 장애인들의 독특한 내러티브를 가능하게 하는 확고한 기반이다. 우리는 이 명제에 따라 우리의 권리를 ‘발명’하고 ‘창출’해나간다. 책 7부 ‘권리를 발명하다’에서 소개하는 화장실에 갈 권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권리 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나치수용소나 남산 고문실 등의 극단적인 인권 유린의 현장에 있어 보지 않았던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권리’란 이름조차 얻지 못했던 권리들을 장애인들이 발견하고 발명해나간다.

‘인간다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물리적인 것과 정서적·감정적인 것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다움의 기본조건’들은 물리적인 동시에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다. ‘오줌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물리적 고통과 정서적 모멸감을 분리하거나 그 경중을 비교할 수 있을까? 물리적 고통은 모멸감 혹은 수치심으로 이어지며, 그 역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인간이기를 지속하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권리를 발견하고 주장한다.

하지만 권리를 발명한다 해도 ‘권리’가 법령집에 묶인 언어가 될 때, 장애인들은 인간의 기본조건에서 여전히 소외된다. 법률로 장애 차별은 금지할 수 있지만, ‘매력 차별’은 결코 금지할 수 없다(249쪽). 법률이 아무리 잘 갖춰져 최대한의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 한들, ‘잘못된 몸’들이 ‘아름다울 기회’까지 나눠가질 수 있을까?

‘아름다울 기회의 평등’에 대해 고민하는 8장 서두에 등장하는 ‘지민’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다.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의 8할 이상은 내게 정중하거나 친절했고, 5~6할 정도는 정치적으로 올바랐다. 나는 욕을 듣지 않아서 욕을 할 수 없었고, 내게 모욕을 준 사람들의 깊은 ‘선의’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흔히 ‘기본적인 필요’라 불리는 것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고, 내가 품위나 매력의 결핍으로 ‘배부른’ 투정을 한들, 그 결핍을 채워줄 제도가 있을 리도 만무했다. 결국 그건 어떤 방법으로도 사회에 책임을 지을 수 없는 나의 책임 혹은 나의 결핍이었고, 거기에 대해 투정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았

다. 소독을 마친 병원처럼 깨끗하고 ‘올바른’ 나의 환경에서 나는 행복했고 외로웠다. 혼자 앉아 푸념을 늘어놓다가 만족도 감사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휩싸이는 날들이 많았다. 나의 내러티브는 복잡한 동시에 정적(靜的)이었으므로 언어화되지 못했다.

불리한 판결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던, 구제 불능으로 꼬여있는 나의 내러티브에 김원영의 책이 말을 걸어왔다. 그의 글은 허세에 절어 인생의 많은 시간을 퍼포먼스에 소비해버린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며,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쳐줬다. 센스 있는 배려보다 경령경령한 남자의 질 나쁜 추파를 더 기다리던 순간에 대한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었다 해도, 내 존재가 실격처리 당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내 옆을 스치며 아무도 모르게 귓가에 속삭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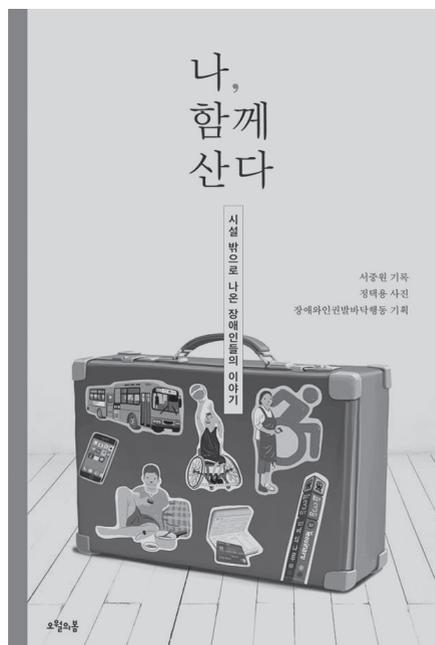
정말이지 고품격의 감언이설이 아닐 수 없다. 감언이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욕의 자리에서 분명히 일어나 ‘진리’ 같은 것을 주장하다가도, 이 모든 게 실격당한 나에게 던져진 한낱 연기 같은 감언이설은 아닌지 의심되는 순간을 마주치지 않던가? 정말이지, 진실이면 어떻게 감언이설이면 또 어떤가? 중요한 것은 삶의 어느 고비에서 받은 실격의 표식을 지닌 당신과 나는 그 감언이설과 그 속에 섞인 일말의 진실을 누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 또 그 모든 감언이설을 실재로 바꾸어내라고 외칠 권리가 있는 ‘존엄’이라는 것 아니겠나?

[노들 책꽂이2]

어떤 말들의 해방

홍은전

노들아학 휴직교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복직할게요.



<나, 함께 산다>

서중원 기록·정택용 사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기획
2018 / 오월의봄

<나, 함께 산다>는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태반의 구술자가 언어장애가 있거나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이 기록의 진정 기록할 만한 점이다. 누군가 나에게 이 작업을 제안했다면 대번에 거절했을 것이다. 여러모로 '각이 안 나오는 일'. 이 구술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언어능력, 그러니까 '이야기하기'이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장애니까 말이다.

기록자 서중원은 용감하게도(!) 이 제안을 기쁘게 수락한다. '살아 있음을 멋지게 항변하는 이들'을 만나다니! 그러나 동경심에 가득 차 그녀가 놓친 것이 있으니, 자신이 장애인을 거의 만나본 적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흔한 패키지여행 한번 가보지 않았던 사람의 '오지 탐험기'라고 할까.

그리하여 애초 1년을 염두에 두었던 여행이 2년을 넘겼던 까닭은 '여행 내내 자신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짐작하건

“가... 강원도...”

은혜원에선 추웠어... 추웠어...”

“같이 방 쓰던 애가 바짝, 아니, 바아짝,

응, 바르짜이 있었는데,

무서워, 막 묶어놓고 때리고.”

대 부서진 것 중 가장 낭패인 것은 '언어'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그러니까 표준어의 체계 안에 선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다는 사실 말이다.

“이빨... 경찰서... 가서... 찾았어. 동생.” 상분 씨는 기록자가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자 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상분 씨의 몸짓은 기록자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 “치아... 아니, 치과기록을 가지고, 경찰서? 누구랑 갔는데? 활동가들이 도와서? 찾았어, 동생을?” 무수한 스무고개 끝에 얻은 정보들을 '번듯하고 매끄러운'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일, 기록자의 필력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자는 상분 씨의 입말 그대로 옮겼다. 상분 씨를 어떤 매력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이야기의 '주체'로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설 나와 사니 뭐가 좋으냐는 질문에 상분 씨가 대답한다. “추운 게 좋아. 정우(남편)가 안아줘. 따뜻해. 이불처럼.” 그러면서 연필로 꼭꼭 눌러쓴 시를 한편 보여준다. ‘〈눈〉. 이상분. 지난밤에/ 눈이 소소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발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나리지.’

기록자는 상분 씨의 시에 가슴 떨려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느 문예지에 기고했다가 한 독자로부터 이 시가 상분 씨의 것이 아니라 운동주의 것이라는 제보를 듣는다. “상분 씨 마음이 시인의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운동주 시인도 좋아하셨을 거예요”라는 말과 함께. 둘 사이의 짐작과 오해 속에 새롭게 탄생한 이야기! 상분 씨와 운동주와 기록자와 독자가 함께 지어낸 이 이야기가 나는 눈물이 날 만큼 좋다.

그동안은 엄숙한 증언들만이 시설 밖으로 나왔다. 이제 시설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말들은 이런 것들이다. 더듬는 말, 맥락을 알 수 없는 말, 뭉개지고 덩어리진 말, 까끌까끌한 말. '언어의 수용소'가 있다면 필시 감히고야 말았을 '추하고 열등하고 쓸모없는' 말들.

나는 어쩐지 어떤 견고했던 독이 무너진 것 같은 해방감이 든다. 더 많은 짐작과 오해 속에 공동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함께 산다는 건 함께 이야기를 지어나가는 것이다. 돌아갈 길이 '부서져야' 비로소 시작되는 이야기. 지도 없이 떠난 그녀의 여행이 하나의 지도가 되었다. 부러워서 가슴이 조금 아프다.

이런 저런 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장애인문화예술판 후원인 김연정 님



〈노들바람〉 2018년 가을호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판의 작업 파트너이자 후원인인 김연정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일상(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잘 줄이면서 살고자 궁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노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
: 친구가 장애인문화예술판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장애인문화예술판'을 알게 되었어요. 벌써 4년 전 일이네요. 판의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어쩌다 후원을 하게 되었나?**
: 장애인문화예술판의 사람들과 종종 일을 함께 하면서 판의 활동을 알게 되었고 판의 활동이 좋아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 **노들과 함께한 일 중에 재밌었던 일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일이 있다면?**
: 작년겨울 판 공연이었던 <천장은 위에 있고 마

루는 밑에 있다>라는 공연의 소품으로 큰 벽시계를 만들었는데요. 만드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재밌었네요. 소품작업과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 **노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 함께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음.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네요. 은아언니, 솔, 좌 대표님, 누리에. 이렇게 판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사람들과 앞으로도 이런 저런 일을 기회가 되면 같이 도모하고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 **노들에 하고 싶은 이야기**
: 노들을 통해 마음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힘든 일 속에서도 밝은 표정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2018년 09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주)머스트자산운용 강남훈 김미진 강병완 강복현 강선아 강성윤 강수혜 강영미 강용원 강윤석 강정자 강주성 강현욱 강혜민 강희관 강희연 고경신 고경화 고동수 고명순 고명희 고병권 고선희 고수진 고승현 고아라 고재현 고정화 고제현 고혜순 공영렬 공선화 공정옥 공태윤 곡노근 곡성이 곡성자 곡영미 구세나 구수준 구승기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미경 권병주 권영진 권용희 권우정 권은영 권익재 권진영 권태국 권혁은 권현기 권혜선 김가경 김각균 김건욱 김건형 김경남 김경란 김경은 김경혜 김계숙 김관희 김국란 김규태 김근식 김금례 김금순 김기룡 김기룡 김기성 김기오 김남수 김누리 김대희 김도경 김도현 김동림 김동은 김동진 김두경 김란희 김명애 김명학 김명화 김문수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현 김민 김민림 김민아 김민영 김민자 김민호 김민희 김범수 김범식 김보라미 김보연 김보영 김봉덕 김봉석 김부연 김상수 김상희 김석규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욱 김선희 김설민 김성미 김성은 김성현 김성희 김세영 김소명 김소희 김수경 김수영 김수정 김수한 김수현 김수호 김숙이 김순남 김아람 김안지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지 김연희 김영년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승 김영옥 김영자 김영희 김윤남 김용성 김용우 김용욱 김용태 김우경 김원숙 김유미 김유정 김윤석 김윤자 김윤진 김은미 김은순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이중 김인숙 김인자 김재경 김재영 김재희 김정미 김정민 김정숙 김정은 김정은 김중호 김준 김준호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에 김지은 김지환 김진수 김진순 김진우 김창배 김철순 김탄진 김태승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판균 김푸른솔 김필순 김하은 김한민 김한솔 김한준 김현영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화 김형배 김형호 김혜경 김혜미 김혜옥 김혜진 김홍수 김효진 김희정 김희찬 김희창 김희현 나선영 나정숙 나해니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정민 남지현 남효진 노경애 노규호 노미경 노상경 노의현 노현택 노혜련 노희선 노희정 류명옥 류승기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향희 류혜인 마미주 맹보영 모경훈 문건화 문경희 문병준 문상빈 문상태 문성원 문소리 문송이 문예진 문은영 문정애 문지의 문창배 문희정 민아영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태 박경화 박계선 박금숙 박누리 박란희 박명숙 박민경 박민영 박보건 박상일 박상호 박서진 박서희 박선미 박선애 박선은 박성욱 박성희 박세단 박세라 박세진 박세호 박소영 박수인 박수진 박승원 박승하 박시백 박애경 박연희 박영민 박영환 박운솔 박완신 박은정 박인당 박장근 박장근 박재국 박정숙 박정원 박종진 박종철 박종화 박주원 박준호 박지민 박지연 박지영 박지호 박진우 박찬양 박태만 박하순 박현희 박효경 박흥식 반영신 방복순 배경원 배문섭 배승천 배안나 배운주 배진숙 백미라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윤희 백재선 변영옥 변주옥 변화순 서남교 서동석 서명순 서명아 서민영 서봉경 서유나 서은수 서주형 서찬욱 석지윤 선우대룡 선혜란 성서연 성정현 성창기 소현미 손동각 손병갑 손성권 손성현 손은경 손자경 손정수 손제주 손주영 손준희 손혜연 손환목 손희경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은영 송종호 송주훈 송창국 송현정 신미숙 신미현 신복순 신봉준 신수정 신숙희 신순영 신승애 신연실 신영희 신원정 신은덕 신은희 신임식 신진 신현훈 심미경 심보름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정주 안경모 안경희 안남희 안문필 안바라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연주 안영춘 안정애 안정원 안종녀 안준희 안향미 안희옥 양석주 양수경 양수정 양운근 양이승 양인순 양정화 양현준 어수진 엄재균 엄주철 여준민 연호준 오미영 오민정 오보람 오상만 오세령 오영미 오원근 오원주 오은영 오정자 오정희 오지은 오현숙 옥승우 우시우 우영선 우인숙 원명재 원민희 원성현 위순월 유남숙 유문수 유미선 유보배 유영순 유영영 유지경 유창재 유혜경 유호성 유희준 윤경훈 윤기남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명섭 윤미라 윤미선 윤민진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인진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준서 윤호진 윤화숙 윤희 이강수 이근학 이근호 이근희 이경덕 이경아 이경옥 이경운 이경윤 이경훈 이경희 이계삼 이광만 이광재 이규식 이근희 이금주 이금희 이길용 이나라 이난경 이동진 이두혁 이라나 이라라 이라나 이명화 이미나 이미리람 이미영 이미정 이범민 이비함 이상림 이상우 이상준 이서윤 이서준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성연 이성호 이소정 이수석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수현 이수윤 이승현 이승훈 이말찬 이연욱 이연주 이영덕 이영란 이영미 이우현 이원진 이유미 이윤경 이윤옥 이윤지 이은숙 이은자 이은정 이인영 이창우 이재령 이재승 이정민 이정숙 이정실 이정욱 이정은 이정희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란 이종실 이종현 이주오

후원방법 안내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이주옥 이준길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혜 이지환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이찬미 이창열 이충희 이태근 이학인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옥 이현욱 이현진 이효연 이효영 이효중 이효정 이효진 임경희 임광열 임나미 임동근 임명애 임산하 임성순 임세연 임소연 임영희 임원택 임유정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중현 임주현 임채원 임춘학 임태중 임하연 임향연 장경주 장귀분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영 장선정 장성권 장성아 장순임 장옥란 장원 장은경 장정아 장정환 장제형 장지희 장춘환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기성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옥 전은주 전준규 전형진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동식 정명진 정미란 정민구 정상엽 정상욱 정선애 정선옥 정성락 정성철 정송이 정연숙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용관 정윤안 정윤일 정윤훈 정우영 정우준 정운영 정유진 정은경 정익화 정재훈 정정민 정정희 정종권 정중현 정중화 정지영 정지혜 정진영 정진이 정창조 정태원 정택용 정현강 정현진 정현찬 정혜림 정혜영 정훈 정희진 조경애 조문경 조미숙 조미연 조미정 조봉현 조사랑 조선호 조성진 조수안 조아라 조원일 조윤경 조윤실 조윤정 조은경 조은주 조은진 조은현 조이라 조자영 조재범 조하나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좌동업 좌미경 좌혜경 주상연 주상의 주용준 주은아 지덕근 지세진 지영숙 지혜를 진영옥 진영민 진태원 차순정 차종원 채이배 천성호 천영희 천종민 천진수 최귀선 최귀숙 최기상 최동호 최미란 최민경 최병훈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선우 최승우 최영숙 최영식 최영은 최영인 최영자 최우영 최은경 최은숙 최은아 최은정 최은화 최은희 최재민 최재우 최재희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주형 최지영 최진희 최찬일 최전봉 최하정 최한별 최현정 최현진 최혜영 추경진 탁현철 태미화 하경남 하금칠 하인혜 하정자 한경훈 한남희 한래희 한명숙 한영희 한상배 한상민 한성희 한성안 한승희 한주영 한혜선 한혜선 한희자 허보영 허숙자 허순인 허신행 허영신 허안수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효재 홍경미 홍도순 홍명희 홍성미 홍성호 홍세미 홍승대 홍순민 홍순희 홍영선 홍영희 홍은전 홍은진 홍주영 홍지연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무초(무임) 황성윤 황승미 황정희 황진미 황하연 황혜전 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주)지암메디테크 강귀화 강수혜 강영오 곽한복 공공운수의료연대_서울지역지부 김미선 김선심 김시중 김연정 김태은 김현덕 남완승 대한불교조계종_대상사 류동훈 박경선 사랑의후원금 서금석 안성희 에리스 엠 알앤글로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선례 오선실 오장환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미라 윤수현 윤지형 이한진 이현숙 이현우 이효상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정대성 조광배 종로장애인복지관 주식회사 THL 착한클라우드 허병권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물품 후원

7월 한살림 쌀 60kg 책방이음&나와우리 쌀 20kg 승인교회 쌀 20kg 스파인2000 응급약 용산지역아동센터 쌀 40kg, 액젓2병, 김 4봉지 전동건 티처스 1박스, 황도 김종분 참외 푸드뱅크 빵 2봉지 길음종합복지관 월 7개 번기남 음식물쓰레기봉투 20장 박보금 껍티슈 6개, 세제 2개 김행욱 주스 2박스 성북체육회 삼계탕닭 30마리 김선숙 빵 김예빈 상추, 고추, 감자 등 청소업체 사장님 사탕 3봉지
8월 한살림 쌀 90kg 책방이음&나와우리 쌀 20kg 승인교회 쌀 20kg 푸드뱅크 빵 3봉지 길음종합복지관 영양음료 24개 3박스, 스파클링 음료 12개, 빵 1봉지, 아채 1봉지 오상만 비타오백 1박스 박지혜 박카스 2박스, 비타오백 1박스 배재현 오렌지주스, 망고주스 1.5L
9월 한살림 쌀 60kg 책방이음&나와우리 쌀 20kg 승인교회 쌀 20kg 지석범무사무소 구기자한과 인강원 떡 김명주 풋고추 여섯 푸대 유지영 점이식침대, 밥술 박지혜 비타오백 2박스, 박카스 2박스 길음종합복지관 푸드뱅크 빵 2봉지 정소영 반찬통 대 5개, 중 3개, 필립스핸드블라인더



노란들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실사출력, 인쇄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일터, 서로의 꿈이 상생하는 곳, 모두를 위한 들판을 꿈꿉니다.

디자인 + 인쇄 · 실사출력 · 타이벡
 T 02.469.9101 H www.norandp.co.kr

NEW BRAND 공생공장

타이벡 made with DuPont™ Tyvek®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며 만드는 곳
 '공생공장'은 타이벡 원단 소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기존 일회용 현수막을 대체하는 노란들판만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노란들판만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공생공장은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노란들판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제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Waterproof · Super Light · 100% Recyclable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P www.ncil.or.kr
 EMAIL nodl@hanmail.net SNS @nodcil
 TEL 02-766-9103 MOBILE 010-5766-9103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P www.420pan.or.kr
 EMAIL centerpan@420pan.or.kr
 TEL 02-6082-6420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 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격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하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T 02-766-9120 F 02-6937-1701 E nodeul@gmail.com

물론 혜정과 오랜만에 함께 살아가는 일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도전의 연속이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혜정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무척 자연스럽다. 혜정과와의 삶에서 나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것은 혜정과와 살아가는 것 그 자체보다 혜정과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안 된 이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살면, 살아진다.

<어른이 되면>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보낸 시절 밖 400일의 일상

- 글 장혜영. 그림 장혜정. 우드스톡, 2018.

